

## 제5장

# 사회조사 항목개발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

심수진 · 박주언 · 이희길

제5장



## 제1절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통계청 「사회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작된 종합사회조사로 주관적 사회지표 작성을 위해 출발한 조사이다. 사회지표는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통계청, 2012a). 이 사회지표 중에서도 「사회조사」는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나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이며,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를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사회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다.

사회지표는 해당 국민의 삶의 질과 당시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주기로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7년 처음 작성된 이후 1987년, 1995년, 2004년, 2012년에 걸쳐 4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사회가 변화하고 이를 보는 이론적 관심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중요한 관심 영역이나 가치 등이 변화하게 된다. 예로 30년 전에는 생활수준의 파악에 있어 TV, 세탁기 등의 유무가 큰 변수였던 반면,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일-가정 양립, 주관적 웰빙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없었던 반면, 현재는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사회지표와 「사회조사」는 시계열 자료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생활수준과 특징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조사」의 기존 항목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왔다. 2008년에는 조사주기 변경(영역별 3년에서 2년)과 함께 전체 영역에 대한 항목검토와 개발을 하였으며(심수진·이희길, 2009), 이번에는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 맞추어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신규항목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하는 등 매우 실천적인(practical)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사회지표 작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 맞추어 2014년 조사 영역인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5개 영역에 대해 항목 검토와 신규항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현재 「사회조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다른 조사와의 경쟁상황 및 유사중복 문제를 검토하여 「사회조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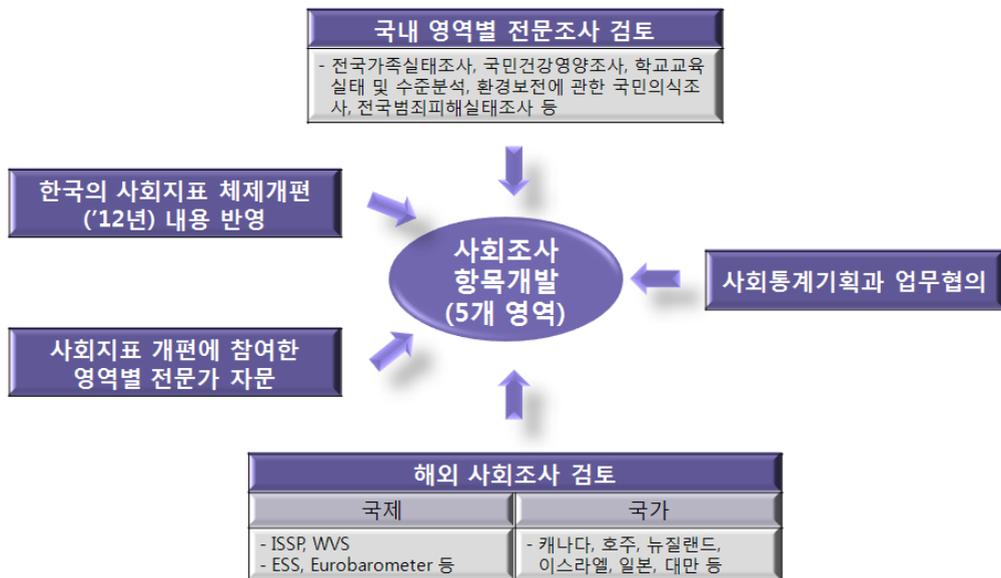
##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항목을 검토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규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는 첫째, 2012년에 수행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보고서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지표체계 및 측정틀에 기초하여 각 영역의 조사항목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조사를 검토할 것이다. 국제비교를 위해 시행되는 국제 사회조사와 각 국가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사회조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조사」의 해당 영역에 맞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 영역별 전문 사회조사들로 주로 승인통계들인 이들 조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복되는 조사항목이 무엇인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항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다. 첫째, 사회지표 체계 개편에서 제시된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신규항목을 해당 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신규항목 개발 시 각 영역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조사항목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별 승인 통계조사들이 있고, 여기에서 중복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할 경우 각 영역의 완결성이 떨어져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서 현재 중요 이슈이고 측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신규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거나 해당 영역에 중요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에 수행되었던 『사회조사 항목개발』 연구에서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기존 조사항목의 2배수 가량이 되도록 신규항목을 검토하였다. 이는 해당영역의 신규항목으로 포함하는 것뿐 아니라 참고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과거 보고서에서 이미 대부분의 항목들을 많이 포함하여 권고하였고, 사회변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중요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목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보고서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련 항목 전체를 제시하기보다 중요항목에 대해서만 선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존항목과 신규항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관련 조사를 검토하는 문헌검토가 본 연구방법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며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수행하였다. 사회지표 개편의 영역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서면 자문을 거쳐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5-1] 「사회조사」 신규항목 개발 방법

「사회조사」의 항목을 검토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조사의 본래 목적이다. 「사회조사」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를 근간으로 기존의 조사항목을 검토하고, 신규 항목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조사」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초기에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 시작된 조사이다. 과거 사회지표를 작성할 당시에는 주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조사가 거의 전무했던 시기로 객관적인 행정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객관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보다 주관적이고 질적인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조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영역에서 통계청 승인통계도 양적 및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를 측정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들이 존재하고 이들 통계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의 이유로 정보와 통신 영역은 2000년 이후, 주거와 교통 영역은 2004년 조사 이후로 중단되었고, 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후자는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삭제된 영역 이외에도 승인통계에서의 중복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이 다른 승인통계 조사와 중복을 이유로 삭제되었다<sup>1)</sup>.

「사회조사」의 모든 해당 영역에 걸쳐 이미 심층적이고, 전문화된 승인 통계조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 영역의 「가족실태조사」, 문화와 여가 영역의 「문화향수실태조사」, 건강 영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안전 영역의 「범죄피해실태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사는 해당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로 조사항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조사」의 지표항목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뿐 아니라 다른 조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주관적 지표들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승인통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사회조사」를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항목들이 제외되면서 전체 삶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주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조사」를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사회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2013년 현재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복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타 조사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사회조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를 들면, 사교육비, 다문화가정, 범죄피해, 아동보육 관련 항목 등

## 제2절 국내외 사회조사 현황

### 1.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통계청, 2012b). 「사회조사」는 1977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총 8개 영역(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회지표 개편과 사회변화에 맞추어 개편되어 왔다(<표 5-1> 참조). 2008년 「사회조사」 체계개편 이후 현재는 전체 10개 영역에 대해 영역별 2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 5-1> 「사회조사」의 조사 연혁

	변경내용
1977. 3	소득/소비,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에 관한 사항 조사
1979 ~	총 8개 영역 중 매년 4~5개 영역 선정하여 부문당 평균 5개 항목 조사 - 소득/소비, 고용/노사,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문화/여가, 공안
1985 ~	심층조사를 위해 연간 2~3개 영역으로 조사영역 축소하고 항목수 확대
1998 ~	총 12개 영역을 매년 3개 영역씩 조사, 영역별 4년 주기 -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정보와 통신, 주거와 교통
2000 ~	정보와 통신(2000년 이후), 주거와 교통(2004년 이후) 영역 삭제
2006 ~	영역별 3년 주기로 조사주기 전환
2008 ~	총 10개 영역에 대해 매년 5개 영역씩 조사, 영역별 2년 주기 - 조사명칭 변경: 사회통계조사 → 사회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에서 별도 표본추출

### 2. 해외 사회조사 사례

#### 가. 국제비교 사회조사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사회조사에는 크게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종합사회조사(GSS: General Social Survey)」, 세계가치관



조사 협회의 「세계가치관조사(WVS: World Value Survey)」,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등이 있다<sup>2)</sup>.

ISSP의 GSS는 1984년 창립된 이래 현재 48개국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배경변수에 대한 조사와 연도별 특정 주제모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준 배경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지역, 고용지위, 소득 등 20여 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성된다. 연도별 주제모듈은 약 10년의 주기로 진행되며, 정부의 역할, 사회연결망,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 노동, 종교, 환경 등의 주제가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부표 5-1> 참조)<sup>3)</sup>. 각 나라에서는 배경변수와 주제모듈에 대해서는 동일한 항목으로 같은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국가 간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각 나라의 조사는 주로 ISSP에 가입된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나라를 비교해 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 ISSP의 GSS 조사국가 주요 사례

국가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영역	조사 방법
미국	GSS	시카고 대학 (NORC)	2년 core/ISSP 모듈	개인적 특성/ 정서적 특성/ 소득활동 / 직장생활 등/ ISSP 선정주제	면접
일본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오사카대학	1년 core/별도주제/ISSP,EASS	직업/ 매일의 삶/ 건강/ 정치/ 생활 형편/ 가족과 사회적 삶/ ISSP 선정주제	면접 및 직접
독일	German General Social Survey (ALLBUS)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	2년 core/별도주제/ISSP 모듈	사회적 불평등/ 건강/ 가족/ 시민권, 국가정체성/ 환경/ 사회네트워크/ 정치참여와 태도/ 미디어이용/ 라이프 스타일 등/ ISSP 선정주제	면접
대만	Taiwan Social Change Survey	Academia Sinica	1년 core/별도주제/EASS	종교/ 시민권/ 국가정체성/ 매스미디어/ 가족과 성/ 사회계층/ 실업/ 사회문제/ 국제관계/ 정신건강/ ISSP 선정주제	면접

2) 2008년의 『사회조사 항목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추가적인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3)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issp.org/index.html>)

「세계가치관조사(WVS)」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의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나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이다. 1980년부터 6개 대륙 80여 개 국가에서 약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 미시건 대학의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박사가 주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세계가치관조사협회 회원들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조사되며, 나라별 최소 1,000명 이상의 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치나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영역은 크게 일상생활, 가족, 정치, 환경태도, 과학기술, 공동체, 사회안전, 일, 종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주로 가치관이나 생각, 태도를 묻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부표 5-2> 참조)<sup>4)</sup>. 그러나 WVS의 경우 ISSP의 GSS처럼 각 나라의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해서 매년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어서 조사 시기별로 조사기관과 연구기관이 다르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럽사회조사(ESS)」는 European Science Foundation에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2년 주기로 시행된다<sup>5)</sup>. 조사방법은 핵심항목과 추가 주제모듈로 구성되며, 핵심항목은 2년 주기로 매년 반복되는 기본항목이고, 추가 주제모듈은 조사시기에 맞는 특정주제 모듈이다. 핵심항목에는 미디어, 사회신뢰, 정치, 주관적 웰빙, 사회안전, 범죄피해, 사회적 배제, 종교, 차별, 이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2012년의 특정 주제모듈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대한 주제로 조사되었다(<부표 5-3> 참조).

## 나. 국가별 사회조사

국가별로 조사되고 있는 사회조사는 크게 조사주체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연구소나 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로 나뉘어진다. 개별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조사는 ISSP의 GSS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위주로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뉴질랜드이다(<표 5-3> 참조).

4) 세계가치관조사 홈페이지(<http://www.worldvaluessurvey.org>)

5) 유럽사회조사 홈페이지(<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표 5-3〉 해외 사회조사 사례

국가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영역	조사방법
캐나다	GSS	통계청	15세 이상	1년 주제별	보건/ 생활시간/ 가족/ 범죄피해 / 고용/ 교육/사회적지지/ 사회적 계약 등	전화 CAPI
스웨덴	Living Condition	통계청	16~84세	1년 core/topic	주거환경/ 건강/ 고용/ 여가/ 경제/ 교육/ 안전/ 사회관계/ 이동 등	전화
호주	GSS	통계청	18세 이상	4년 core/topic	인구/ 교육/ 직업/ 교통/ 건강/ 가족,공동체/ 범죄/ 운동/ 소득/ 문화여가/ 정보기술/ 금전문제/	전화
이스라엘	Israel Social Survey	통계청	20세 이상	1년 core/topic	주거와 지역/ 건강과 출산/ 종교/ 교육/ 정보통신/ 직업/ 휴가/ 가족 친구관계/ 범죄/ 자원봉사활동/ 만족감/ 재정 등	면접
뉴질랜드	GSS	통계청	15세 이상	2년 core	재정적 웰빙, 건강, 주거와 이웃, 안전, 사회적 연결, 자원봉사, 환경, 삶에 대한 만족	면접 CAPI
영국	General Lifestyle Survey	통계청	16세 이상	1년 core/topic	주거유형/ 소비/ 토지/ 이민/ 시민권/ 국가정체성/ 민족/ 고용/ 교육/ 건강/ 보육/ 재정/ 소득 추가주제: 사회이동/ 사회자본/ 구강건강/ 스포츠와 레저 등	면접 CAPI

조사명칭은 「General Social Survey」가 가장 보편적이고, 스웨덴은 「Living Condition」, 영국은 「General Lifestyle Survey」 명칭으로 조사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조사와 거의 유사하다. 조사대상 연령은 15~20세 이상까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조사주기는 캐나다의 경우 1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나 핵심항목 없이 세부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며 주제별로 보면 약 5년 정도의 주기로 조사가 진행된다. 호주, 이스라엘, 영국의 경우 조사주기는 호주가 4년, 이스라엘과 영국은 1년으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핵심항목과 세부주제별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항목은 매년 반복되며 사회조사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시계열 비교나 다른 항목들과의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조사된다. 세부주제별 항목은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개별 주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항목은 「사회조사」에서의 배경변수와 동일한 개념이나, 가구정보 등과 같은 기본항목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이들 항목들 간의 비교분석이나 세부주제별 항목들 간의 비교분석 시 도움이 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들 방식과는 달리 특정 세부주제 없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영역이나 항목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가족, 건강, 직업, 소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관계와 사회자본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항목도 많이 조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캐나다 조사의 경우 기본항목 없이 세부 주제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태도보다는 현재의 실태와 현상에 대한 항목으로 주로 구성된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하는 조사들은 대부분 전체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항목보다 가치관이나 태도 관련 항목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경향이 있다. 세부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검토될 것이다.

### 3. 검토결과

통계청 「사회조사」와 해외 사회조사 작성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외에서 시행되는 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조사항목의 구성방식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영역을 나누어 2년 주기로 조사하는 반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사의 경우 대부분은 전체 영역을 핵심항목으로 구성하여 한 번에 조사하고, 추가적인 특정 주제를 정하여 심층적인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이는 사회조사가 포괄하는 영역의 범위가 넓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많아서 한 번에 전체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회조사에서 전체 영역을 핵심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시마다 동일하게 포함하는 것은 시계열 비교의 목적과 함께 각각의 항목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의 항목들과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영역이 둘로 나뉘어져 조사되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조사되지 않는 영역과의 비교분석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가족 관련 가치관, 건강상태, 교육에 대한 태도 등은 비교분석이 가능하나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의 직업만족도는 어떠한지,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사회관계는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수는 없다.

하위 영역이나 조사항목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각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사영역은 가족, 직업, 소득, 건강, 문화, 사회통합, 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영역별 항목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 제3절 영역별 조사항목 검토

2014년 조사 영역인 가족, 보건, 교육, 안전, 환경 영역의 조사항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제의 일차적인 목적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측정틀과 지표개편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sup>6)</sup>. 각 영역의 측정틀과 사회지표 체계개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지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재 「사회조사」의 조사항목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사회조사의 사례검토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신규항목을 개발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외의 사회조사 사례검토에서는 교육조사나 가족조사와 같은 각 영역별 주제의 전문조사가 아닌 전체 사회조사 사례를 위주로 해당 영역을 검토하였다. 이는 각 영역별 조사의 목적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다 보니 해당 주제 안에서는 범위가 포괄적이면서 조사항목은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사회조사의 경우 전체 영역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작성목적에 맞게 영역별 측정범위와 조사항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각 영역별 조사의 경우는 해당 영역의 측정틀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sup>7)</sup>, 실제 「사회조사」 항목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조사항목을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사회조사와 각국의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종합사회조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내사례의 경우는 각 영역별 조사 중 승인통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는 국내의 경우 검토대상이 될 만한 사회조사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ISSP 조사인 「한국종합사회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조사의 경우 국제비교 조사로 ISSP의 조사항목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사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각 영역별 조사는 매우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영역의 전체적인 측정틀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회조사」의 항목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른 승인통계와의 중복문제이다. 「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을 삭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승인통계와의 중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통계와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승인통계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신규항목에서 제외한다면 실제로 검토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6) 각 영역별 측정틀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반영하였다.  
7) 2008년에 수행되었던 『사회조사 항목개발』에서는 각 영역별 조사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있다. 각 영역별 조사는 해당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로써 측정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조사」에 포함된 항목들 중에서도 측정척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규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사회지표 체계개편에서 주관적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역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인지, 삶의 질 측정에 필요한 항목인지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도 신규항목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승인통계가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주로 중복되는지를 추가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역에서 현실에 뒤떨어지는 조사항목이나 추가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각 영역 담당 집필진들<sup>8)</sup>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수렴 후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 1. 보건 영역

### 가. 보건 영역의 측정틀과 조사항목

#### 1) 측정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건 영역은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서 영역의 명칭을 “건강”으로 변경하였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이에 따라서 「사회조사」에서도 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명칭을 ‘보건’에서 ‘건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병이었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들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조건이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질병구조도 변화하였으며, 바이러스가 아닌 생활습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이에

8) 보건 영역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육 영역 김경근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안전 영역 민수홍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가족 영역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환경 영역 김종호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따라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틀을 크게 건강결정요인(원인), 건강상태(결과), 보건 의료시스템(대응)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 2) 사회지표 체계개편 내용

2012년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의 건강 영역에서는 최근의 건강증진 전략에 맞추어 지표개편을 하였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중 조사통계를 활용한 지표는 <표 5-4>와 같다.

<표 5-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건강 영역의 조사통계 활용 지표

하위영역	지표통계표명	신규 여부	출처
건강상태	성별 결핵 신환율과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기존	국민건강통계
	성 및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기존	사회조사
	성 및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	신규	국민건강통계
	성 및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기존	사회조사
	성 및 연령별 신체활동제한일수	신규	국민건강통계
건강결정 요인	흡연율, 간접흡연노출률 및 고위험 음주율	신규	사회조사
	성 및 연령별 신체활동실천율	기존	사회조사
	야채와 과일 섭취율, 비만율	신규	국민건강통계
보건의료 시스템	성, 연령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신규	사회조사
	성, 연령별 의료서비스 신뢰도*	신규	-

주: \* 표시된 지표의 경우 신규항목 개발이 필요한 지표임

주관적 지표는 모두 10개이고 이 중 신규로 추가된 지표는 6개 지표이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신건강 측정 항목과 질병으로 인한 신체활동제한일수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고, 건강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신체활동실천율, 야채와 과일 섭취율이 추가되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지표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들 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기존 「사회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이고, 의료서비스 신뢰도 항목은 신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이다.

### 3) 기존 조사항목

현재 「사회조사」 보건 영역의 2012년 조사항목은 전체 17개 항목으로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주관적 건강평가, 유병기간, 스트레스, 자살충동의 항목과 건강결정요인을 측정하는 건강관리, 흡연, 음주 관련 항목, 보건의료시스템 영역의 치료방법, 의료서비스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 영역의 조사항목은 최근 정신건강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6년에는 자살충동, 건강관리방법의 항목이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스트레스 인식정도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지속적인 항목의 추가로 건강을 측정하는 하위 영역별 필요항목은 거의 포함하고 있다. 다만 건강상태에 일상생활 활동 제약이나 비만과 관련된 항목, 건강결정요인에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식습관 관련 항목이 현재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5〉 보건 영역 2012년 조사항목

하위 영역	조사항목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유병기간,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 스트레스 정도(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 자살에 대한 충동, 자살충동이유
건강결정요인	건강관리, 흡연, 금연시도, 금연이 어려운 이유, 음주, 절주/금주 시도,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
보건의료시스템	치료방법,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 나. 국내외 건강 관련 조사 현황

### 1) 국제 및 해외의 조사항목

건강 관련 조사항목은 국제조사 및 해외의 사회조사에서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는 그만큼 건강이 개인이나 사회의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조사항목의 경우 다른 영역들보다는 유사한 구성 체계와 항목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화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나라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측정항목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측정 지표체계도 나라마다 측정하는 하위영역의 구성이 거의 유사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건강 영역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6>과 같다.

ISSP에서는 2011년에 '건강' 주제모듈을 처음 조사하였다. ISSP에서 측정하고 있는 건강 영역의 조사항목은 다른 조사들과는 약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건강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는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의료정책이나 의료불평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와 가치관을 묻는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견해<sup>9)</sup>,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세금부담 의향, 공적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sup>10)</sup>, 건강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유, 한방에 대한 견해, 의사에 대한 평가 등 의료 정책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지난 1개월간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활동의 어려움, 신체적 통증 경험, 불행하고 우울한 경험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항목과 주관적 건강평가, 만성질환 여부,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건강행동과 관련된 항목은 흡연과 음주, 그리고 운동, 과일과 야채 섭취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서비스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경험과 미치료 경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된다.

EASS 조사에서 건강 관련 주제모듈은 2010년에 조사되었다. 이 항목은 ISSP의 건강 주제모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의료정책 및 서비스 관련 견해나 가치관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 측정항목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정도로 측정하는데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문제를 분리하여 묻고 있다<sup>11)</sup>. 또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서경험, 만성질환 여부(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호흡기) 등의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미치료 경험과 이유,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없을까봐..',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에 처했을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까봐..'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9)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①한국의 의료제도는 비효율적이다, ②수년 이내에 한국의 의료제도는 더 나아질 것이다, ③정부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④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10)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 ①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공적으로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②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신체적 건강, 정서적 문제 때문에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각각 질문(5점 척도): ①내가 원하는 것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②나의 일이나 다른 활동에서 제한을 받았다.

〈표 5-6〉 해외 사회조사의 건강 관련 조사항목 사례

조사	영역	조사항목
ISSP 건강 모듈	의료정책 관련 가치관	의료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견해,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의료불평등 정도, 의사에 대한 견해,
	건강상태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입원여부, 주관적 건강평가, 만성질환 및 장애여부, 키와 체중,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정도
	건강행동	흡연, 음주, 건강보험여부, 운동, 과일채소 섭취정도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 미치료 경험,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정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EASS 모듈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일상생활 제약, 신체적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신적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통증으로 인한 사회생활 제약, 정서경험, 사회생활 제약, 만성질환여부, 키와 체중, 스트레스 정도
	건강행동	흡연, 음주, 운동,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병원이용, 미치료 경험과 이유, 건강보험 여부, 미치료와 병원비에 대한 걱정 정도
대만	건강상태 (정신건강)	두통, 가슴두근거림, 불안정, 불면증, 부담감, 자신감 결여, 미래 희망, 휴식,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한 느낌, 유병률
	건강행동	음주, 흡연
	의료서비스	치료여부와 방법
호주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장애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 주변 도움 필요, 교육이나 직업활동 제약 여부
	스트레스	지난 1년간 경험(심각한 사고, 질병,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 정신적 질병, 심각한 장애, 이혼, 실직, 폭행, 음주문제, 차별 등)
	의료서비스	치료지연 여부
이스 라엘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보조기구 없이 시력(청력) 어려움, 일상생활 제한 정도(보행, 옷입기, 씻기, 먹기, 외부활동 등), 수면시간, 불면증, 피곤 정도, 정서적 상태, 키와 체중
	건강행동	항목별 건강검진 여부 및 시기, 체중조절 의향, 운동여부 및 시간, 운동하는 이유, 하지 않는 이유, 식습관(아침 횡수, 정기적 식사, 야채와 과일섭취 등), 흡연, 건강 관련 보험 등
뉴질 랜드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일상생활동작능력,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일상 생활 제약, 정신적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서경험
	건강행동	흡연



대만의 「사회변화조사」에서는 2010년 별도의 주제모듈 중 하나로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사의 건강 영역과는 달리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항목이 세분화되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주간 두통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정 정도, 불면증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담감, 자신감, 삶의 희망,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호주의 「종합사회조사」에서는 기본 공통항목으로 건강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일상생활의 제약, 스트레스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평가와 치료지연 여부 항목과 함께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건강문제, 일상생활에서도 도움 필요 여부, 학업이나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겪었는지를 통해서 측정한다. 예를 들면 심각한 사고나 질병, 지인의 죽음, 정신건강, 장애 그리고 이혼, 실직, 음주문제, 폭력범죄 피해, 차별 등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이스라엘의 「사회조사」에는 2010년 '건강과 삶의 방식'의 주제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 공통항목이 아닌 주제모듈로 포함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건강상태와 건강행동으로 측정되는데 건강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유지의 어려움을 항목별로 각각 측정하고 있으며, 불면증, 수면시간, 피곤한 느낌, 다양한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건강행동을 측정하는 항목 중 다른 조사와 차이점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항목으로 항목별<sup>12)</sup> 건강검진 여부와 시기, 목적 등을 동시에 묻고 있다. 또한 체중조절 여부와 방법, 운동여부와 시간, 운동을 하는 이유, 식습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에서는 공통항목으로 건강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주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별도로 묻고 있으며, 정서경험 항목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해외의 사회조사에 포함된 건강 관련 측정항목을 검토한 결과 주관적인 건강평가와 음주, 흡연과 관련된 항목을 대부분의 조사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과 의료 서비스 미치료 경험 관련 항목도 일반적으로 많이 포함하는 항목이다.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항목도 항목 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12)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전립선암 검사, 소변검사, 장내시경, 구강검진, 예방접종 등

## 2) 국내 건강 관련 조사항목

국내 승인통계에서 특정 질환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제외하고<sup>13)</sup> 전체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이 있다(<표 5-7> 참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식품섭취, 영양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 조사의 경우 건강상태나 식품섭취, 영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진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항목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수행했던 『사회조사 항목개발』(심수진·이희길, 2009)보고서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부분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항목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표 5-7> 국내 승인통계 중 건강 관련 조사

조사명	작성기관	주기	규모	조사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1년 (3년 조사 순환 표본)	227,700명	<b>검진조사</b> <b>건강조사:</b> 질병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손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정신건강, 안전의식, 여성건강, 구강건강 <b>영양조사:</b> 음식 및 식품섭취내용, 식생활행태, 영양지식, 식이보충제, 식품안전성, 수유, 이육식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	1년	11,000가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접종, 이환, 유병, 치료, 의료이용, 사고중독, 활동제한, 보건소 이용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을 파악하여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조사내용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검진조사와 영양조사를 제외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건강행동,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상세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건강상태에서는 각각의 질병에 대한 진단여부, 치료여부 등을 묻고 있으며, 일상생활 동작능력, 질병으로 인한 활동제한 여부, 주관적 건강평가와 오늘 건강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행동에서 음주, 흡연, 교통안전의식, 운동과 신체활동,

13) 예를 들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정신질환실태조사」,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등이 있다.

식생활, 건강검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음주의 경우 고위험 음주자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항목<sup>14)</sup>을 구성하고 있다.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간단하게 구성되며, 질병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이용횟수, 그리고 미치료 의료경험 및 이유, 보건소 이용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항목개발 결과

건강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조사항목이 영역의 측정 체계에 맞게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해외 사례에서 검토한 결과 건강 영역 조사항목에서 주관적 건강평가, 유병률, 음주와 흡연 및 의료서비스 이용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건강 영역 측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지표를 위주로 조사항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항목 위주로 신규항목을 검토하였다. 또한 삭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건강행동 관련 항목 중 금연과 절주, 금주 관련 항목으로 금연시도와 금연이 어려운 이유, 절주/금주 시도와 금주가 어려운 이유이다. 실제로 개인들의 건강행동에서 흡연과 음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조사에서 포함하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흡연과 음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흡연/음주 여부와 흡연량(음주량)이고, 실제 금주나 금연 시도 여부는 부가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항목 수를 고려한다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 1) 건강상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크게 주관적인 건강평가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건강상태, 그리고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검진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각각의 질병별 의사의 진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회조사에 포함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현재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2주 동안의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일수, 누워 지냈던 일수”로 유병률을 측정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현재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이 항목의 경우 해외 사회조사의 건강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다.

일상생활 제약 정도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소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동작(식사, 걷기, 목욕 등)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와 건강(신체적, 정서적)

14) 한 번에 7잔 이상(여성은 5잔) 마시는 횟수, 자제가 안 되는 횟수, 일상생활 지장 정도, 아침의 해장술 횟수, 음주 후 후회경험, 기억상실, 상담여부 등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가사, 직장, 학업)에서 얼마나 제약을 받았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즉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와 건강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제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기존에 「사회조사」 항목에서 조사되었다가 2008년 이후 「국민건강영양조사」와의 중복과 응답부담을 이유로 삭제된 항목이다. 해외사례<sup>15)</sup>에서 주로 많이 측정하고 있는 항목은 건강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이다<sup>16)</sup>. 이 항목은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조사」의 기존 유병률 항목의 경우 정서적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아팠던 일수에는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보여주는 항목을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문제로 분리하여 신규로 구성하고자 하며, 조사대상 기간은 기존의 다른 항목과 같은 기간인 지난 2주간으로 한정하였다<sup>17)</sup>.

#### ○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도

Q1. 귀하는 지난 2주간 **몸이 아파서** 직업(학업, 가사)이나 일상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까?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별로 그렇지 않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Q2. 귀하는 지난 2주간 **마음이 아파서**(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직업(학업, 가사)이나 일상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까?

- ① 항상 그랬다                      ② 자주 그랬다                      ③ 가끔 그랬다  
④ 별로 그렇지 않았다            ⑤ 전혀 그렇지 않았다

(ISSP, EASS의 건강 모듈 참조)

건강상태 측정을 위한 항목 중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례검토 결과 정신건강 측정항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회지표 체계개편』에서도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을 제시하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 항목은 스트레스 인지율 측정 항목과 함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15) ISSP의 건강 모듈, EASS의 건강모듈, 호주, 뉴질랜드 등

16) 건강 영역 전문가 자문 결과 전자의 경우(일상생활 수행능력)는 주로 노령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측정이기 때문에 「사회조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신체적 기능저하를 측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17) ISSP와 EASS 조사에서 일상생활의 제약 관련 항목의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한 달이다.





경우가 많다. 그리고 ISSP '건강' 모듈이나 이스라엘 「사회조사」에서는 과일과 야채 섭취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신규로 제안하고자 하는 항목은 야채와 과일 섭취 정도 항목과 비만을 측정할 위한 키와 체중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고자 한다<sup>20)</sup>. 이는 건강 영역의 다른 항목들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야채와 과일 섭취율 항목은 다른 조사의 사례에서는 얼마나 자주 먹는지로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조사」의 건강관리 항목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실천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므로 기존 항목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조사표 설계상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일과 야채의 섭취는 보건학적 기준이 '매일' 먹는가에 초점이 있으므로<sup>21)</sup> '매일' 섭취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야채와 과일 섭취 여부**

Q. 귀하는 평소 다음 각 사항을 실천하는 편입니까?

1) 아침 식사하기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2) 적정수면(6-8시간)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3) 규칙적 운동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4) 정기 건강검진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5) 매일 과일과 야채 섭취	① 실천한다	② 실천하지 않는다

(기존 「사회조사」 항목에 추가 구성)

**◦ 비만을**

Q. 현재 귀하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 (            cm), 몸무게 (            kg)

### 3) 보건의료시스템

보건의료시스템은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항목이 주로 포함된다. 기존 「사회조사」 항목에는 이용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거나 지연되는 경우이다. 미치료 경험 관련 항목은 ISSP 모듈, EASS 모듈, 호주의 「일반사회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20) 비만과 관련해서는 본인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체중조절 여부, 방법, 이유 등과 관련된 항목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인의 체형에 대한 평가' 항목은 중복을 이유로 1999년 이후 삭제되었고, 체중조절 관련 항목은 방법이나 이유 등의 항목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으로 여기에서는 신규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21) 건강 영역 전문가 자문 의견임



미치료 여부와 이유에 대한 항목을 신규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지연치료를 한 경험과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항목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의료복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미치료 경험과 이유**

Q1. 귀하는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1) 있다 - ① 대기시간이 길어서                      ② 비용이 비싸서
- ③ 주변에 의료시설 없어서              ④ 교통편이 없어서
- ⑤ 병원가는 것을 싫어해서                  ⑥ 진료받을 시간이 없어서
- ⑦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⑧ 기타(    )

2) 없다

3) 비해당(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

(ISSP EASS의 건강 모듈)

「사회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추가하여 의료서비스 신뢰도 항목을 신규지표로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항목과 연결하여 추가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Q. 지난 1년동안 귀하가 아팠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이며 그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이용한 적 있다.

-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약간 신뢰한다    ③ 보통
- ④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 이용한 적 없다

(기존 의료 서비스 만족도 항목과 연결하여 구성)

〈표 5-8〉 건강 영역 조사항목안

내용	항목	질문내용	조사 대상	비고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전체	기존
	유병기간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일수, 누워 있었던 일수	전체 가구원	기존
	일상생활 제약정도	지난 2주간 신체적 건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도	전체	신규
		지난 2주간 정서적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 정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와 등급	전체	기존
	스트레스 정도	가정/직장/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 정도(4점 척도)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4점 척도)	전체	기존
자살충동과 이유	지난 1년간 자살충동 여부와 주된 이유	전체	기존	
건강 결정 요인	우울감 경험률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 또는 지난 2주간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 정도	전체	신규
	건강관리	각 항목의 실천여부(아침식사,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매일 야채와 과일 섭취)	전체	추가
	흡연	현재 및 과거 흡연여부와 흡연량	전체	기존
	금연시도	지난 1년간 금연시도 여부	흡연자	삭제
	금연이 어려운 이유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	흡연자	삭제
	음주	지난 1년 동안(과거) 한 잔 이상 음주 여부와 음주량	전체	기존
	절주/금주 시도	지난 1년 동안 절주나 금주 시도 여부	음주자	삭제
	금주가 어려운 이유	금주를 하기 어려운 이유	음주자	삭제
키와 몸무게	현재의 키와 몸무게	전체	신규	
보건 의료 시스템	치료방법	지난 2주 동안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복약 여부와 기간	유병자	기존
	미치료 경험과 이유	지난 1년간 미치료 경험과 이유	전체	신규
	의료기관 신뢰도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전체	신규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난 1년간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전체	기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3순위)	불만족 응답	기존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신규개발 항목이고, 음영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존항목임



## 2. 교육 영역

### 가. 교육 영역의 측정틀과 조사항목

#### 1) 측정틀

교육은 개인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관련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주요 객관적 지표로 인식되면서 학력을 매개로 한 사회이동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잠재해 있던 국민들의 교육열이 지위획득의 열망과 결합하면서 급속한 교육팽창이 발생하게 되었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그러나 이와 같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입시경쟁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태도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측정이 중요하다.

교육 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틀은 크게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 및 과정, 교육효과'와 같은 세 가지 하위영역<sup>22)</sup>으로 구성된다. 우선 교육기회는 교육의 조건 및 과정과 결합하여,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과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에 대한 투자나 취학 전 교육기회, 평생교육기회, 국가의 인적 자원 등을 제시하는 영역이다. 교육의 조건 및 과정은 교육기회 영역의 요소와 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학습자의 동기나 태도,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 등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는 전술한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 및 과정의 요소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다.

#### 2) 사회지표 체계개편 내용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교육' 영역 개편의 중점사항은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과 교육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한국 교육의 양적 발전과 질적 향상 정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장차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다. 개편된 지표 체계에서 조사통계를 활용하는 지표는 총 11개이며, 기존의 지표 중 3개는 삭제되고 4개는 신규로 추가되었다(<표 5-9> 참고).

22) 이와 같은 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투입-과정-산출로 이어지는 체제 모형에 입각해있으며, 교육기회는 투입, 교육의 조건 및 과정은 과정, 교육효과는 산출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지표체계에서는 관심영역을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2~3개의 세부관심영역을 두었는데, 최근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연구 결과 재구성되었다.

〈표 5-9〉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교육 영역의 조사통계 활용 지표

하위영역	지표통계표명	신규 여부	출처
교육기회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기존	가계동향조사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기존	사교육비조사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기존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삭제	사회조사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삭제	사회조사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삭제	사회조사
교육의 조건 및 과정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신규	-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학교생활만족도	기존	사회조사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학습시간*	신규	-
	학교급별 도서관 이용 및 독서정도	신규	국민독서실태조사
교육효과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기존	사회조사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에 대한 인식	기존	사회조사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기존	사회조사
	학습자별 평생학습의 성과에 대한 인식	신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 표시된 지표의 경우 신규항목 개발이 필요한 지표임

삭제된 지표는 교육기회 영역의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과 목적’, 그리고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으로 모두 2012년 「사회조사」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우선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과 목적은 최근 들어 연도별, 지역별, 성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은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와 같은 지표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신규로 제시된 지표는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학습시간, 독서 정도 그리고 평생

학습'에 대한 것이다.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의적(affective)<sup>23)</sup> 측면에서의 지표와 학습시간, 독서정도에 대한 지표는 학습자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기존의 평생학습 관련 지표는 참여율 및 참여시간만 포함되어 있어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교육 영역과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때 독서정도와 평생학습에 대한 지표는 각각 기존의 「국민독서실태조사」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 포함된 조사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과 학습시간은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에 관련 조사항목이 존재하지만, 이 조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고 이미 지난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자격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의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사회조사」의 신규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기존 조사항목

2012년 「사회조사」 교육 영역의 조사항목은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 및 과정, 교육효과 각 영역과 관련된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5-10>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우선 현재 학생과 재학생 여부를 질문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교육기회와 관련된 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교육비 부담정도 및 요인,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을 파악하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의 조건 및 과정 관련 조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정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파악하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교육효과 관련 조사는 학생을 제외한 응답자에게 교육기회충족 여부와 미충족 이유,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교육의 효과정도, 그리고 취업자 및 경험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공과 가장 최근 직업의 일치도에 대해 파악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과거에는 조사되었으나 변경과정에서 최근 삭제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수업참여도(2010년 삭제), 평생교육 참여여부 및 희망 평생교육(2008년 삭제), 교육기회 균등(2008년 삭제), 교육비지출액(2004년 삭제) 등이 있다. 앞에서 나열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관련 조사에 포함된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되었다. 학생의 수업참여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평생교육 관련 항목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그리고 교육비지출액은 「사교육비조사」에 있는 유사항목

23) 정의적 측면은 정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인지적(cognitive) 측면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명료해진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회 균등 항목은 조사 목적이나 결과 활용이 모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되었다.

〈표 5-10〉 교육 영역 2012년 조사항목

하위 영역	조사항목
공통	학생 여부, 재학생 여부
교육기회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 수준,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부모의 자녀 기대교육 수준, 부모의 자녀 기대교육 목적,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자녀유학 희망 단계, 자녀유학 희망 이유, 교육비에 대한 인식, 교육비 부담 요인, 대학생 여부,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의 조건 및 과정	학생자녀 유무, 부모의 자녀학교 운영 참여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효과	교육기회의 충족도,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여부, 취업 여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교육의 효과



## 나. 국내외 교육 관련 조사 현황

### 1) 국제 및 해외 조사항목

해외의 교육 관련 조사는 교육을 주제로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보다 사회조사 내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통계청 「사회조사」 항목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조사」 내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조사 내에 ‘교육’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육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소득 등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서 교육수준에 대한 소수의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유럽사회조사(ESS), 미국의 「종합사회조사」, 영국의 「종합가구조사(GLS)」, 이스라엘의 「사회조사」, 대만의 「사회변화조사(TSCS)」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음의 <표 5-11>에서는 ISSP의 조사항목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례는 유로바로미터(2011)(직업 교육과 훈련 모듈), 호주의 「종합사회조사(2010)」,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2010)」(지식과 기술 모듈), 일본의 「종합사회조사(2008년)」, 캐나다의 「종합사회조사(2007년)」 등이 있다.

이때 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교육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이나 가치관을 측정하기보다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같이 객관적인 사항들, 즉 응답자의 학력이나 교육경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성인기의 직업훈련 경험 및 성과에 대해 파악하는 항목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항목들은 국내 「사회조사」의 항목을 검토하고 신규항목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제한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5-11〉 해외 사회조사의 교육 관련 조사항목 사례

조사	영역	조사항목
ISSP	교육기회	응답자/배우자/부모의 최종학력, 응답자 고등교육 이수기간
유로 바로미터	교육기회	최종이수한 교육수준, 교육과정 선택에 조언해준 대상, 학교와 직장에서 학습과 커리어에 관한 충분한 조언받는지 정도, 교육과정 선택의 정보원천,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부모 학력 등
	교육의 조건 및 과정	직업 교육에 대한 각 요인의 중요도 등
	교육효과	직업 교육과 훈련 이수자가 중·고등교육자보다 취직에 도움 정도, 직업교육과 훈련의 효과에 대한 각 서술에 대한 동의 정도 등
호주	교육기회	최종이수학년, 교육상의 자격(수료증, 학위 등) 보유 여부, 자격증의 주된 분야, 희망한 자격증 존재 여부(지난 1년), 자격증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 등
뉴질랜드	교육기회	공부 혹은 훈련 여부 및 희망 여부, 공부 혹은 훈련 못하는 이유
	교육의 조건 및 과정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일본	교육기회	응답자/배우자/부모 최종학력, 직업교육 경험여부
캐나다	교육기회	초·고등학교 이수기간, 고등학교 졸업여부 및 졸업연도, 상급학교 진학여부, 최종학력, 전공, 학업과 일 병행정도, 학업 중단 경험 여부 및 이유, 직장교육 경험 여부 및 효과적인 교육유형, 개인적인 관심 분야별 학습여부, 배우자 학력 등

## 2) 국내 교육 관련 조사항목

국내의 교육 관련 조사는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중단조사」, 「사교육비조사」, 「사교육의식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등이 있다(<표 5-12> 참조). 이 가운데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은 과거 국가 승인 통계였으나 제외되었고, 이 외에 나머지 조사들은 모두 국가 승인통계에 해당한다.

〈표 5-12〉 국내 승인통계 중 교육 관련 조사

조사명	작성기관	주기	표본 규모	조사내용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sup>1)</sup>		1년 (2003년)	12,381명 <sup>2)</sup>	학생 및 가족의 생태학적 특성, 부모-자녀 관계, 과외참여 비율, 학습 심리적 배경, 학습활동, 학교생활, 학교 풍토(학습문화 등), 교육만족도 등
한국교육 종단조사	한국교육 개발원	1년 (2005년)	6,908명 <sup>3)</sup>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표의식, 공동체의식, 학습 심리적 요인, 학교 및 학교 외 프로그램 참여, 교우 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 개념, 가치관, 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등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		1년 (2007년)	12,800명 (25~64세)	형식/비형식/무형식학습 참여 실태, 장애 요인 및 접근성, 학습유형, 학습역량, 학습의 사회적 성과, 학습에 대한 태도
한국교육 고용 패널조사	한국직업 능력 개발원	1년 (2004년)	6,000명 (학생)	학교생활(재학여부, 학교유형 및 소재지, 대입준비 사교육경험 등), 진학계획, 구직 활동, 일자리 지속여부, 현 일자리 특성, 취업 의사 및 취업준비, 직장경력, 가정 생활, 여가 생활, 교육 훈련, 진로 계획, 취업선호도 등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1년 (2007년)	46,000명 (학부모)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 학교 내 보충교육비(방과 후 학교 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사교육 의식 조사	교육부	1년 (2007년)	46,000명 (학부모), 35,000명 (학생)	사교육 참여 결정 주체, 정보획득 경로, 사교육 증가 원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 학교교육 만족도 등

- 주: 1) 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함  
 2) 중학생 12,381명과 학생의 학부모, 학교, 교장, 교사 대상 실시(2007년 기준)  
 3)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과 학생의 학부모, 교장, 교사 대상 실시

한편 「사교육비조사」, 「사교육의식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각 특정주제인 사교육과 평생학습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는 상세한 조사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과 「한국교육중단조사」 자료를 주로 검토하였다.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은 2003년 이후 매해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순서로 하나의 학교급에 초점을 두고 학생, 학부모, 학교,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급별로 3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앞으로 2014년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의 실태를 살펴보고, 3년 주기에 따른 학교 교육 전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여건에 대해서는 학생 및 가족의 생태학적 특성, 부모의 교육열, 부모-자녀 관계, 포부 수준, 과외참여 비율 등을 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학습 심리적 배경, 학습 활동, 학교생활, 학교풍토(학습문화 등) 등에 대해 주로 조사하고 있다. 이때 특히 학습 심리적 배경은 학습동기(외재적, 내재적 원인), 자아존중감, 입시스트레스 등에 대한 항목들로 측정하고 있다. 교육성과는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와 인성을 조사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육중단조사」는 2005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과 이들의 학부모,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교육 활동과 학습 경험,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성취 등을 표본 학생들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까지 추적 조사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표의식, 공동체의식 등 교육의 투입 측면에 대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교육 과정은 학습 심리적 요인, 학교 및 학교 외 프로그램 참여, 교우 관계 등에 관한 항목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산출에 대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개념, 가치관, 교육만족도, 진로성숙도 등에 관한 항목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 다. 항목개발 결과

지금까지 「사회조사」에서 추가나 삭제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결과와 현재 국내 「사회조사」의 조사항목 그리고 교육 관련 국내외 조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는 기존 지표체계의 ‘교육자원’ 영역을 ‘교육의 조건 및 과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지표체계와 비교하여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의적(affective) 측면의 지표들과 ‘학습시간’과 같이 학습자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를 새로 포함하고 있으므로(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사회조사」에서 이에 대한 항목을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작성하는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과 목적’, 그리고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지표는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조사」의 조사항목들은 시계열 유지와 다른 항목과의 상관 분석 등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조사」의 기존 조사항목인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영역에서 삭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자녀 유학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녀 유학 항목은 조기유학 붐과 함께 신규로 들어온 이슈성 항목으로 다른 조사 항목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영역에서 신규항목으로 학생의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학습시간, 그리고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관련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신규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의와 필요성, 측정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 사례를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관련 항목

우선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관련 항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각각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학습동기는 학생의 학습동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즐거움이나 흥미 등에 의한 내재적 학습동기와 처벌이나 보상 등에 의한 외재적 학습동기로 구분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는 신규지표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특히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이나 교육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의적 차원에서의 특성이 투입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학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포함시킨 것이다(Bandura, 1997, 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재인용).

나아가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sup>24)</sup>에 있는 관련 항목을 인용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외재적 학습동기(6개)와 내재적 학습동기(5개)로,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내용(3개)과 부정적인 내용(5개)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동기에 대한 11개 세부항목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8개 세부항목을 모두 측정하는 것은 조사의 길이나 응답부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일부 항목은 제외하여 「사회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신규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습동기(중·고등학생)

Q. 다음 각 항목은 귀하가 공부하는 이유를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2.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상(칭찬 등)을 주시므로					
3.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4.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5.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2007 참고)

학습동기는 기존의 전체 11개 세부항목에서 외재적 학습동기 3개와 내재적 학습동기 2개로<sup>25)</sup>, 자아존중감은 전체 8개 세부항목에서 긍정적인 내용 2개, 부정적인 내용 3개로 축소하였다.<sup>26)</sup> 이때 특히 외재적 학습동기의 경우 단순히 기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24) 이 조사는 국내 교육 관련 조사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승인통계에서 제외되었고 2003년 부터 2014년 까지 일정 기간 동안만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조사」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여도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5) 학습동기 관련 삭제(축소) 항목  
 - 외재적 학습동기(6개):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를 하면 부모님께서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셔서, 선생님께서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를 하면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칭찬을 하셔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 내재적 학습동기(3개):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즐거워서

26) 자아존중감 관련 삭제 항목(3개): 나는 학급의 임원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남보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아니라, 외재적 학습동기를 부과하는 주체인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항목의 수를 축소하였다. 학습동기는 1~3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외재적 학습동기로, 4~5번까지의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내재적 학습동기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5개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의미한다(단, 3~5번 항목은 역코딩).

◦ 자아존중감(중·고등학생)

Q. 다음 각 항목은 귀하를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2.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4. 나를 무시하고 알보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5. 선생님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2007 참고)



## 2) 학습시간 관련 항목

학습시간은 학교 수업 외에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시간으로서, 학습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정 영역의 변수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학생들의 삶의 질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지표이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앞에서 살펴본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과 함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신규지표로 포함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학습시간의 영향력이 학습시간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자기주도적 학습시간’과 ‘사교육 시간’으로 구분하고,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을 토대로 「사회조사」에 신규항목으로 포함시켜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이란 ‘학교 수업 외에 숙제(단, 학교 및 학원(과외)의 숙제를 모두 포함)나 공부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사교육 시간은 ‘학원 또는 과외 수업시간’을 의미한다.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두 가지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라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과 이를 제외한 기타에 대해 각각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학습을 하는지 측정하고 있다. 응답방식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의 경우 직접 시간을 입력하고, 사교육 시간은 시간에 대한 범주(1시간 이하, 2시간, ...8시간 이상 등)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을 「사회조사」에 신규항목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학습시간의 유형에 따른 응답방식의 차이는 이후 결과 활용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시간의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한 시간에 대한 응답방식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범주형보다는 개방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회상기간은 '평소 일주일 동안'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만약 회상의 편의를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시험 준비 기간 등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달라지므로 조사시점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사회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신규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27).

• 학습시간(중·고등학생)

Q. 귀하가 **평소 일주일 동안** 다음 각 과목의 학습을 위해 학교수업 외에 숙제나 공부를 한 시간과 학원(과외) 수업을 받은 시간은 각각 몇 시간 정도 입니까?  
(전혀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쓰세요.)

	국어	영어	수학	기타
1.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학교수업 외 숙제나 공부)	시간	시간	시간	시간
2. 사교육 시간 (학원(과외) 수업)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2007 참고)

한편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비조사」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 자녀의 사교육 시간에 대해 조사하는 유사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조사」에서 신규항목으로 학생의 학습시간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 기존의 「사교육비조사」와 중복 조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조사」에서는 사교육 시간에 대해서만

27) 사회지표에서 각 과목별 시간을 구분하여 신규지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조사항목 또한 국어, 영어, 수학, 기타로 구분하여 항목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사교육 시간의 경우 과목별 시간을 응답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나,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의 경우 각 과목별로 몇 시간씩 나누어서 공부했는지 응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응답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과목구분을 하여 항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회조사」에서 학습시간에 대한 신규항목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만 측정할 경우, 사교육 시간과의 비교 및 다른 요인들과의 분석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시간과 사교육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신규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관련 항목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또는 불신이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수준에서도 자녀의 여러 가지 측면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심수진·이희길, 2009).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교수와의 관계'와 '전공'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구성하였다.



#### ○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초·중·고 학부모)

Q.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학생인 자녀를 모두 고려하여,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교육내용(교육수준)					
2. 교육방법(수업지도, 평가)					
3. 교우관계					
4. 교사와의 관계					
5. 학교시설 및 설비					
6. 학교 주변 환경					
7. 전반적인 학교생활					

한편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교육의식조사」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 자녀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측정하는 유사한 항목(28)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28) 「사교육비의식조사」의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만족도 조사항목: '교과 수업(수업내용, 수업 방식 등), 특기·적성 개발, 진로지도, 인성교육,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각각의 측면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표 5-13〉 교육 영역 조사항목안

내용	항목	질문내용	조사 대상	비고
공통	학생	현재 학생(휴학생·재수생 포함) 여부	전체	기존
	재학생	현재 재학생 여부	학생*	기존
교육 기회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대학교 이상 응답자)교육을 받고자하는 주된 목적	학생*	기존
	자녀 기대 교육 수준 및 목적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대학교 이상 응답자)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주된 목적	학부모	기존
	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자녀유학 희망 유무 (자녀유학 희망 응답자만)유학 시작 희망 단계 (자녀유학 희망 응답자만)유학시키고자 하는 주된 이유(2순위)	학부모	삭제
	교육비 부담 및 요인	자녀교육비 소득대비 부담 정도(5점 척도) (교육비 부담 응답자)교육비 중 가장 부담되는 것	학부모 가구주	기존
	대학생 등록금 마련	현재 대학생(휴학생 포함) 여부 (대학생 응답자)최근 학기 등록금 마련 방법별 비율	학생*	기존
교육의 조건 및 과정	학교운영 참여도	현재 학생(휴학생·재수생 포함) 자녀 유무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자녀의 학교운영(수업 참관, 급식 배부, 학부모회 등)에 참여하는 정도(5점 척도)	전체	기존
	학습동기	자신이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 외재적 학습동기(3개), 내재적 학습동기(2개)	중·고등 학생	신규
	자아존중감	자신을 잘 나타내는지 동의하는 정도 - 긍정적인 문항(2개), 부정적인 문항(3개)	중·고등 학생	신규
	학습시간	학습시간 유형에 따른 각 과목(국, 영, 수, 기타) 학습시간 - 학습시간 유형 :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사교육시간	중·고등 학생	신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각 분야에 대한 학교생활만족도 정도 - 교육내용(수준), 교육방법(수업 지도, 평가), 교우관계, 교사(수)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전공(예체능·특성화고, 대학 이상), 전반적인 학교생활(5점 척도)	재학생*	기존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정도 - 교육내용(수준), 교육방법(수업 지도, 평가),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전반적인 학교생활(5점 척도)	초·중·고 학부모	신규
교육 효과	교육기회 충족도	교육기회충족여부 및 미충족 주된 이유	학생 제외	기존
	학교교육 효과	각 분야에 대한 학교교육의 효과정도 - 지식·기술 습득, 인격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직업·취업에 활용(5점 척도)	전체	기존
	전공과 직업 일치도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및 대학(교) 졸업 여부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응답자)현재 취업 여부 및 과거 취업경험 여부 (취업자 및 경험 응답자)전공과 가장 최근 직업의 일치도(5점 척도)	학생 제외	기존

주: 1)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신규개발 항목이고, 음영 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존항목임  
 2) \* 표시 항목에서 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임

조사」에서 신규항목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 기존의 「사교육의식조사」와 중복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도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유사한 내용이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조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신규항목을 도입하여, 기존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 관련 항목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안전 영역

#### 가. 안전 영역의 측정틀과 조사항목

##### 1) 측정틀

안전은 '삶의 질'과 '사회의 질'과도 관련성이 매우 높은 생활 영역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은 가장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최근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의 증대로 인해 전체 사회 차원에서도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자연재해, 안전과 관련된 사고, 사람과 관련된 범죄 등에 대비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2012년 사회지표 개편 시 안전 영역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삶의 질 차원에서 안전 지표들을 선정하기 위해 재해 및 범죄의 현황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의 질 차원에서는 재해, 안전, 범죄에 대처하는 사회의 능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기존 지표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연재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가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나 가뭄, 태풍 등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기술적 위험으로도 일컬어지는 안전사고는 인위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폭발사고 등을 포함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안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범죄의 발생건수나 범죄자 비율, 범죄피해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안전과 관련한 주관적 지표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결과적으로 개편안(<표 5-14> 참조)을 보면 첫째, 자연재해가 독립적 관심영역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연재해라는 의도치 않은 새로운 위험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자연재해는 모든 국가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의 정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 영역의 한 하위영역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둘째, 안전사고를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안전사고에는 교통사고와 화재사고가 포함되고,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과 집단 식중독 발생 환자수 등이 추가되었다. 셋째, 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의 일반적 체계에 따라 범죄와 형사사법활동(crime and justice)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5-14〉 『한국의 사회지표』 안전 영역 기존 지표체계와 개편체계

기존 지표체계	개편체계
-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기타사고의 발생과 예방	안전사고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부하량	범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법집행의 공정성과 인도적 고려	형사사법활동 (범죄방지 및 교도노력 일부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2012

## 2) 사회지표 체계개편 내용

이와 같은 체계개편에 따라, 하위영역별로 제안된 신규지표를 보면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 빈도와 피해액, 황사, 폭염 및 한파 발생일수, ‘안전사고’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집단 식중독 환자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안전의식과 평가’에서는 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범죄’에서는 범죄자의 평균연령, 주요 범죄 발생률이 추가되었고, ‘형사사법활동’에서는 면적당 CCTV 설치비율과 검찰과 경찰에 대한 평가 지표가 추가되었다. 이 중 설문조사가 필요한 주관적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 경찰과 검찰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한편 개편과정에서 지표체계에서 제외된 지표는 ‘안전사고’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고속도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에서는 자기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범죄’에서는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형사사법 활동’에서는 검거까지의 기간별 분포,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주요범죄 발생률, 구속영장 발부율이다.

〈표 5-1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안전 영역의 조사통계 활용 지표

하위영역	지표통계표명	신규 여부	출처
안전사고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삭제	사회조사
안전의식과 평가	성 및 연령별 자기 및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평가	기존	사회조사
	자기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삭제	사회조사
	성 및 연령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기존	사회조사
	성 및 연령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
	성 및 연령별 안전환경(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에 대한 평가	신규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	주요범죄 발생률	신규	전국범죄피해조사
형사사법 활동	(조사에 의한) 주요범죄 미신고비율 및 이유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
	성 및 연령별 검찰과 경찰에 대한 평가*	신규	-

주: \* 표시된 지표의 경우 신규항목 개발이 필요한 지표임

### 3) 기존 조사항목

2012년에 조사된 항목을 보면 크게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사회 안전상태 변화, 향후 사회 안전상태 변화), 준법정신(타인/본인 준법 수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공공질서 준수 수준, 교통사고(원인 및 시설 만족도, 운전여부), 야간보행 안전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지표 성격을 띄지 않는 식품안전을 별도로 추가(9개 항목)하여 21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이와 같은 조사항목으로 2012년 안전영역 지표개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항목개발 및 삭제가 필요하다.

〈표 5-16〉 안전 영역 2012년 조사항목

하위 영역	조사항목
안전의식과 평가	<p>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사회 안전상태 변화(5년 전), 향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5년 후),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 자신의 준법수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공공 질서 준수수준,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자동차 운전 여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만족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p> <p><b>[식품안전]</b>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불안한 이유,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불안한 이유,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불안한 이유,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불안한 이유, 식품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p>



## 나. 국내외 안전 관련 조사 현황

### 1) 국제 및 해외의 조사항목

국가 간 비교에 초점을 두는 국제적인 사회조사에서 안전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세계가치관조사」, 「유럽사회조사」, 「유로바로미터」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세계가치관조사」(WVS 2010-2012)의 조사항목으로는 동네에 대한 체감 안전도, 동네의 범죄 발생 빈도, 안전을 위한 대처행동, 안전위협 상황에 대한 염려 정도, 불안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사회조사」는 핵심항목으로 범죄피해 경험과 두려움을 간단히 묻고 있다. 「유로바로미터」는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안전(security)을 파악하고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challenge)의 범위에 빈곤, 경제위기,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핵재난, 자연재난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조사」에 해당하는 해외 주요 국가 통계청의 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는 안전 영역 항목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측정하고 있는 안전의 범위가 서로 상이 하지만, 공통점이 발견된다. 안전에 대한 항목은 주로 범죄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삶의 안전을 위해하는 것으로 모두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범죄피해 경험도 주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경험여부, 피해정도 및 영향, 신고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 두려움에서는 야간 길거리, 혼자 집에서 등 상황별 체감 안전도를 질문하고 있다.

국가별 차이점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동차 절도, 자동차 침입, 주거침입, 폭력, 폭행 등 다양한 범죄 유형별 피해경험과 경찰 신고 여부를 파악하는 반면, 범죄피해 두려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호주는 사회적 무질서(social disorder)에 대해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고 문제의 심각성, 판단의 정보근거, 문제의 장소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경험과 함께 이로 인해 겪은 문제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스웨덴의 특징은 안전 영역에서 실제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안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구의 재정 문제, 실직에 대한 불안 등 일반적인 안전 영역을 벗어나는 불안도로 측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5-17> 참조).

〈표 5-17〉 해외 사회조사의 안전 관련 조사항목 사례

국가/ 조사명	항 목	질문내용
세계 가치관 조사	동네에 대한 체감 안전도	· 동네가 요즘 얼마나 안전하다고 체감(4점 척도)
	동네의 범죄 발생 빈도	·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일의 발생빈도(4점 척도) - 강도, 길거리에서 음주, 인종차별, 거리에서 마약 판매
	안전을 위한 대처행동	·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있음, 없음) - 많은 돈을 지니고 다니지 않음 - 밤에 외출을 삼가함 - 칼, 총 혹은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다님
	안전위협 상황에 대한 염려 정도	·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염려 정도(4점 척도) - 우리 나라가 전쟁을 휘말리는 것 - 내전 - 정부 전화도청, 이메일 훔쳐읽기
	불안 정도	· 지난 1년간 본인/가족이 '집안에서 범죄로 인한 불안을 느낀 적'(4점 척도)
유럽 사회 조사	범죄피해 경험	· 가구원 중에서 최근 5년간 절도/폭행 피해 경험 유무(있음, 없음)
	범죄피해 두려움	· 다음 지역을 야간에 혼자서 걸을 때, 안전한 정도(4점 척도) - 동네/지역사회
유로 바로 미터	안전위협	· 국가/EU에서 지금 가장 시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위협 - 조직범죄, 테러, 사이버범죄, 자연재해, 부패, 경제/금융 위기, 불법이민, 핵재난, 유럽 국경불안, 종교적 극단주의, 환경쟁점/기후변화, 빈곤, 내전 /전쟁, 경범죄, 기타
	위협의 중요도	· EU의 내적 안전을 위해 다음 위협의 중요성 - 조직범죄, 테러, 사이버범죄, 국경 불안정, 자연재해/인재
	위협의 변화가가능성	· EU의 내적 안전에서 다음 위협의 향후 3년내 증감 가능성 - 조직범죄, 테러, 사이버범죄, 국경 불안정, 자연재해/인재
	위협에 효과적 대처 평가	· EU가 다음과 같은 위협에 충분한 대처여부 - 조직범죄와 전쟁, 테러와의 싸움, 국경 안정, 자연재해/인재에 대한 관리
뉴질 랜드 /안전	상황별 안전도	·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상황별 체감 안전도(4점 척도) - 직장, 주간/야간에 대중교통을 대기 및 이용시, 동네에서 주간/야간에 혼자 걷기
	범죄피해	· 지난 12개월 동안 범죄피해 경험(교통사고 제외) - 괴롭힘/상해/언어 학대/절도/반달리즘/방화 등 · 단일 범죄/복수범죄 여부 · 폭력수반 여부/폭력에 따른 겪은 문제/빈도/삶의 질에 미친 영향 ·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범죄피해 경험/빈도/겪은 문제/삶의 질에 미친 영향
	직장 안전	· 12개월간 일터에서 겪은 육체적 문제 경험여부/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12개월간 일에서 정서적 상처/스트레스 경험여부/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교통사고	· 12개월간 교통사고 경험여부/이로 인해 겪은 문제/삶의 질에 미친 영향
	기타 사고	· 12개월간 가정내/휴일/여가활동 중 겪은 사고/빈도/이로 인해 겪은 문제/삶의 질에 미친 영향



<표 5-17> 해외 사회조사의 안전 관련 조사항목 사례(계속)

국가/ 조사명	항 목	질문내용
호주 /안전 감	안전감	·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체감 안전도(5점 척도) ·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체감 안전도(5점 척도) · 밤에 혼자 지역에서 걸을 때 체감 안전도(5점 척도)
	범죄피해	· 지난 12개월간 물리력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예, 아니오) · 지난 12개월간 물리력이나 폭력 사용 위협을 당한 경험(예, 아니오) · 지난 12개월간 집/차고 등에 침입을 당한 경험(예, 아니오) · 지난 12개월간 집/차고 등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을 본 경험(예, 아니오)
	사회적 무질서	· 지난 12개월간 지역사회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복수응답) - 시끄러운 운전/위험한 운전/길거리에서 모욕, 괴롭힘을 당한 사람/집 단음주/소동/언어공격/집단으로 돌아다니기/시끄러운 이웃/약물 사용 및 거래/낙서/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기타 · 각각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 평가(3점 척도) ·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 - 개인경험/아는 사람의 경험/미디어 정보/기타 · 지난 12개월간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문제의 장소 - 거주지/학교근처/쇼핑센터 근처/대중교통 정거장/대중교통/극장 및 식당/클럽 주위/기타
이스 라엘 /범죄 피해	자동차 절도 피해	· 지난 12개월간 본인/가족 중 자동차 절도 피해(오토바이 제외)/신고여부 · 지난 12개월간 본인/가족 중 자동차 침입/부품절도 피해/신고여부
	주거침입 /절도피해	· 지난 12개월간 주거침입/절도 피해 경험여부/신고여부
	단순절도	· 지난 12개월간 물리력/위협 없이 단순 절도 피해경험/신고여부
	폭행	·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피해(폭행/상해) 경험/신고여부
	성희롱	· 지난 12개월간 성희롱 피해 경험(언어/행위)/신고여부
스웨덴	위협과 폭력	· 1년간 해당 장소에서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 - 집/회사/공공장소 · 그 결과로 인해 겪은 문제 - 병원/치과 치료, 상처, 상해나 위협의 두려움으로 야간에 외출 삼가기
	절도와 손해	· 1년간 해당 장소에서 절도와 손해를 입은 경험 - 집/창고/별장/차량/자전거 등
	불안	· 다음 항목에 대해 불안 경험 - 건강/가구의 재정/집에서 강도나 상해 피해/실직

## 2) 국내 안전 관련 조사항목

국내의 안전과 범죄 관련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에 대한 승인통계인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2012)와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항목을 검토하였다.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로,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국제범죄피해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조사목적은 정확한 피해율과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및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주요 조사 내용을 범죄피해 조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첫째,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측정하는 집합효율성과 사회, 물리적 무질서를 측정하는 동네와 이웃환경, 둘째 일반적 범죄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 두려움을 측정하는 항목, 셋째 지난 1년 동안 사기, 절도, 주거침입, 강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 피해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측정하는 승인통계는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수준에서 제시된 결과만을 참고하였다.

## 다. 항목개발 결과

안전영역은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 및 평가,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으로 그 하위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의식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범죄피해와 안전의식 및 평가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리고 해외 종합사회조사의 경우, 그 주요 내용은 범죄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를 평가하는 안전의식 및 평가, 범죄피해, 형사사법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도 이 체계를 따라 항목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조사항목 중 삭제가 필요한 것부터 언급하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항목이다. 이 지표는 국민의 교통사고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알려주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으로 삶의 질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또한 사회지표성 항목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품안전을 측정하는 9개 항목의 경우도 전반적인 안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삭제를 권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준법수준에서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항목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손쉽고 즉각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부정적 감정 표출로 이를 해소하는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하지만 그 이유를 묻게 되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현상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 1) 안전 의식과 평가

안전의식과 평가 영역에서 신규 추가가 필요한 지표항목은 '범죄피해의 두려움', '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이다. 현재 일반적 범죄피해의 두려움은 '야간보행 안전도'로 측정하고 있으나,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어렵다"와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항목을 합쳐서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집 근처에는 야간에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습니까?”를 대체하여 이들 두 항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 범죄피해의 두려움은 기존에 조사되었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에서 동일 항목이 측정되어 제외된 지표항목이다. 중복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의 자기 완결성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범죄피해 두려움

Q. 귀하는 다음 각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 각국 범죄피해조사 참고)

Q.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범죄피해 유형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칠까봐 두렵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4.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당해 내 재산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봐 두렵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봐 두렵다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에서 발췌 수정)

그리고, 공동체의 효율성과 무질서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지역사회의 안전환경 관련 개념으로 ‘공동체 효율성’은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와 응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는 교제와 참여로 나뉘어 측정되며 우리사회의 비공식적 안전망 진단에 중요한 지표이다. ‘사회·물리적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안전 관련 지역환경의 실태를 진단하는 중요 지표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환경(공동체 효율성)**

Q.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에서 발췌 수정)

◦ **지역사회 환경(사회·물리적 무질서)**

Q.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4.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6. 큰 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에서 발췌 수정)

그리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회조사 항목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및 불안요인에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위영역과 관련된 국가 승인통계가 없어, 한국행정연구원의 재난관리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발생가능성, 향후 증가

혹은 감소 가능성 등을 주요 지표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나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별도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만큼, 여기서는 각각에 대한 피해의 두려움과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및 발생가능성

Q. 귀하께서는 각각의 재해나 사고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또한 이러한 재해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두려움 (보기1 참조)	발생가능성 (보기2 참조)
1. 태풍, 호우		
2. 폭염(열대야)		
3. 대설, 한파		
4.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 보기 1. ① 전혀 두렵지 않다    ② 두렵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두려운 편이다        ⑤ 매우 두렵다
- 보기 2. ① 전혀 없다            ②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있다        ⑤ 매우 높다

(「국민안전 의식조사」(소방방재청·서울대사회발전연구원·한국안전학회, 2005)에서 발체 수정)

## 2) 범죄피해 실태

일반적으로 해외의 안전 영역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범죄피해 경험이다. 범죄피해 조사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범죄형태별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경찰신고여부, 나아가 해당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병원치료나 삶의 질에 미친 부정적 결과까지 파악한다. 여기서는 사회지표 항목인 지난 1년간 절도, 사기,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 이 항목도 사회지표에 포함된 항목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2008년까지 조사되었던 항목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에서 동일 항목이 측정되어 「사회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가 범죄피해, 신고여부, 피해의 결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활용)하고 있고, 표본규모를 대거 확충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므로 「사회조사」에 다시 반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항목>

• **범죄피해 경험**

Q. 작년 한해 동안 귀하나 가구원 중 다음 범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Q-1. 그럼,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까

범죄유형	피해 경험여부		신고여부	
	있었다	없었다	신고함	신고하지 않음
1. 속임(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				
2.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적				
3.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적				
4.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한 적				
5. 고의로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				
6.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한 적				

(「국민안전생활 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참고)

• **미신고 이유(미신고 항목이 있는 경우)**

Q.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피해가 크지 않아서    ②경찰에 신고해도 효과 없음    ③경찰이 귀찮아 할 것 같아서
- ④자체적으로 해결해서    ⑤보복이 두려워서    ⑥범인이 아는 사람이어서
- ⑦남에게 알려지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⑧기타\_\_\_\_\_

### 3) 형사사법활동

일반적으로 치안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개편된 지표체계에서도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질문 내용은 “경찰/검찰은 어느 정도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통계청 「사회조사」에 반영하여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측정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본 지표항목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포함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참고 항목>

•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평가**

Q. 귀하는 다음 각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경찰				
검찰				
법원				

(「사회통합 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13) 참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기관신뢰에서 신뢰도와 청렴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고, 또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까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기관에 대한 청렴도 항목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전국 5,000명을 확률표집하며 정기적 연간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매년 지표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5-18〉 안전 영역 조사항목안

내용	항목	질문내용	조사 대상	비고	
사회 안전 인식	사회 안전 인식도	각 분야에 대한 안전도 평가 정도(5점 척도) -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식량 안보, 정보보안,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전반적인 사회안전	전체	기존	
	사회 불안 요인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3순위)	전체	기존	
	사회 안전 상태 변화	5년 전과 비교한 사회 안전상태의 변화정도(5점 척도) 5년 후, 사회 안전상태 변화정도(5점 척도)	전체	기존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각 분야별 두려움정도(5점 척도) - 태풍/호우, 폭염, 폭설/한파, 지진/쓰나미,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각 분야별 발생가능성(5점 척도)	전체	신규	
	지역사회 환경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한 느낌(5점 척도)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한 느낌(5점 척도)	전체	신규	
식품 안전	수입식품 안전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5점 척도) 수입식품 안전이 불안한 주된 이유	전체 전체	삭제 삭제	
	급식 안전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5점 척도)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급식 안전이 불안한 주된 이유	전체 전체	삭제 삭제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5점 척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불안한 주된 이유	전체 전체	삭제 삭제	
	식품안전	식품안전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5점 척도) 식품안전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이유	전체 전체	삭제 삭제
			식품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	전체	삭제
준법 수준	준법 수준	다른 사람들의 평소 법 준수 정도(5점 척도) 자신의 평소 법 준수 정도(5점 척도) (지키지 않는 경우)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	전체 전체 전체	기존 기존 삭제	
		공공질서 준수 수준	각 분야에 대한 공공질서 준수 정도(5점 척도) - 차례 지키기, 거리환경질서, 보행질서, 운전자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공공장소 정숙	전체	기존
교통 안전	도로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전체	삭제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자동차 운전 여부	전체 전체	기존 기존	
범죄 피해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 여부, 원인 및 주된 대응	전체	삭제	
	범죄피해 두려움	평소 가지고 있는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5점 척도) - 야간 혼자 집에 있을 때, 야간보행 두려움 평소 가지고 있는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5점 척도) - 절도, 강도, 폭행·상해, 사기, 성희롱/성폭력, 기물파손, 가구무단침입, 스토킹	전체 전체	신규 신규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신규개발 항목이고, 음영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존항목임

## 4. 가족 영역

### 가. 가족 영역의 측정틀과 조사항목

#### 1) 측정틀

가족은 개인들이 출생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고,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을 제공받는 1차적인 집단이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최근 가족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1인가구 등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그리고 여성 취업의 증가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 및 성역할 구조의 변화로 현재 급격한 변동의 과정에 있다(여성가족부, 2010).

가족 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틀은 크게 네 가지 하위영역인 가족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으로 구성한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가족구성은 가족 형태, 가족구성원 등을 보여주는 영역이고, 가족형성은 결혼, 출산, 이혼, 재혼 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과정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가족생활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가족의 생활과 관련되며, 가족규범은 결혼, 이혼, 재혼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이나 규범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이 네 영역에서 가족구성과 가족형성 영역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객관적 지표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고, 가족생활과 가족규범 영역은 주로 주관적 지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회지표 체계개편 내용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성역할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규범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가족의 생활패턴과 가족 내 성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와 가족’ 영역 개편의 중점사항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측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개편된 지표 체계에서 주관적 지표로 10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주관적 지표 중 2개는 삭제되었다(<표 5-19> 참조). 삭제된 지표는 입양에 대한 견해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이다. 주관적 지표는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질문에 대한 느낌의 뉘앙스나 암시적인 느낌을 달리하고 그 대답도 명료하거나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태도’ 항목의 경우는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신규로 제시된 주관적 지표의 대부분은 기존의 「사회조사」 항목으로 신규로 추가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미취학자녀의 보육기관과 평균이용시간, 가족관계별 접촉빈도 항목은 신규개발이 필요한 항목이다. 미취학자녀의 보육기관 이용과 관련된 항목은 현재 「가족실태조사」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보육기관의 이용시간 항목은 없다. 가족관계별 접촉빈도 항목은 부부 간 대화시간, 부모가 따로 사는 성인자녀와 연락, 성인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배우자 부모)와 연락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항목은 「가족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관계별 접촉빈도 항목의 경우 사회조사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만남, 전화통화)정도로 200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항목이다.

〈표 5-19〉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가구와 가족 영역의 조사통계 활용 지표

하위영역	지표통계표명	신규 여부	출처
가족구성	분거가족 가구주의 특성 및 분거이유와 분거기간	기존	사회조사
가족생활	성 및 연령별 가사노동분담실태	신규	사회조사
	부모의 생존 및 동거여부별 부양책임자	신규	사회조사
	미취학자녀의 보육기관과 평균이용시간*	신규	-
	가족관계별 접촉빈도*	신규	-
	가족관계별 만족도	신규	사회조사
가족규범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결혼(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기존	사회조사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신규	사회조사
가족형성	입양에 대한 견해,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	삭제	사회조사

주: \* 표시된 지표의 경우 신규항목 개발이 필요한 지표임

### 3) 기존 조사항목

가족 영역의 2012년 조사항목은 전체 20개 항목으로, 분거가족, 가족가치관, 가족생활, 가족 간 관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5-20> 참조). 가족 영역의 조사항목은 2006년에 다양한 가족형태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양에 대한 견해, 분거가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고, 2008년에는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부모와의 교류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노부모 부양, 결혼문화,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견해, 그리고 입양에 대한 견해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관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가사분담 견해와 실태 항목과 부모 부양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족생활 및 역할분담에서 가사노동과 부모부양은 포함하고 있지만, 아동양육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아동양육 및 돌봄과 관련된 항목은 과거 10세 이하 자녀양육 실태 항목으로 복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 삭제되었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항목은 가족관계 만족도 항목에서 개별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부모와의 교류,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에 대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구성된 항목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만족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나, 실제 가족관계와 교류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은 (따로 사는)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족관계 또한 가족관계를 보여주기보다는 고민상담 대상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만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가족영역의 구성항목에서는 아동돌봄, 가족 간 관계나 교류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20〉 가족 영역 2012년 조사항목

하위 영역	조사항목
가족구성	분거가족, 분거가족 이유와 기간
가족규범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의 노후 생계 부양자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 입양을 하고 싶은 이유
가족생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 실태, 부모생존여부, 부모생활비 주제공자, 부모와 동거자부모동거 여부, 부모와의 교류, 가족관계 만족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 나. 국내외 가족 관련 조사 현황

### 1) 국제 및 해외의 가족 관련 조사항목

해외에서 실시되는 대표적인 가족 관련 조사로는 미국의 「가족 및 가구조사(NSFH: National Survey of Family and Household)」와 일본의 「전국가족조사(NFS: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가 있지만<sup>29)</sup>, 여기에서는 사회조사에 포함하는 가족 관련 영역의 조사항목만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는 가족 관련 영역의 조사항목을

29) 미국의 「가족 및 가구조사」는 현재까지 3번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2차와 3차의 조사는 1차 조사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응답자 특성, 가족구성과 배경, 가구구성원들의 관계, 결혼, 이혼, 별거, 입양, 결혼에 대한 태도 등 가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일본의 「전국가족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조사 내용은 친족과 가족에 대한 인지도, 가족구성원의 교육, 직업, 부부관계, 결혼, 가사분담, 가족생활만족도, 가족 돌봄 등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0).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ISSP 주제모듈, EASS 주제모듈, 캐나다의 「종합사회조사」, 대만의 사회변화조사」에서는 가족이 별도의 주제로 포함되어 조사된다.

가족 영역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21>과 같다. ISSP의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주제는 1988년, 1994년, 2002년, 2012년에 조사되었고, 2012년 조사내용은 성역할, 가족주기에 따른 여성의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 소득 및 의사결정권, 일-가정 양립, 자녀에 대한 태도, 대안적 가족형태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인 만큼 주로 가족구조나 배경에 대한 항목이 아닌 가족규범이나 가족가치관 관련 항목으로, 가정 내 역할분담,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개인들의 태도를 묻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과 비교하여 보면,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자녀돌봄에 대한 태도, 출산관련 유급휴가, 학령전 아동 가정의 부모역할분담, 아동과 노인의 돌봄 제공자와 비용부담, 가족돌봄 시간 등의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2006년의 EASS 주제모듈인 '동아시아의 가족'에서 조사항목은 가족 내 가부장적 의식에 대한 태도, 가족돌봄과 가족 간 지원정도, 결혼가치관, 집안일 분담, 가족생활 (저녁식사, 여가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종합사회조사」 중 '가족(Family)' 모듈은 1990년, 1995년, 2001년, 2006년, 2011년에 시행되었다<sup>30)</sup>. 조사내용은 크게 가족구성, 동거와 분거가족, 역할분담, 의사결정권, 출산, 직업, 일-가정 양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규범이나 가치관 보다는 현재와 과거의 가족구성과 배경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캐나다의 다양한 가족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직업의 변화과정과 이유, 가족 내 역할 분담, 의사결정권에 대한 항목도 자세히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사회변화조사」에서는 ISSP 주제 외에도 별도의 주제를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주제는 '가족'이다. 주제가 가족인 만큼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구성과 배경 등에 대해서 배우자의 부모까지 매우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가족 간 지원, 교류, 성역할 및 가사분담,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녀와의 관계, 결혼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갈등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동아시아 가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결혼 시 부모의 지원 정도, 부모부양책임, 남아선호, 가족 내 성역할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가족관계'를 별도의 주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가족구성원 간의 접촉, 지원 정도, 돌봄, 가족문제, 가사분담, 일-가정 양립, 가족과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이나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얘기하는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부 등의 항목을 통해서 가족 간, 사회 간 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 재정적 및 가사

30)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 [www.statcan.ca](http://www.statcan.ca)

지원을 주고 받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세부항목으로는 '한부모도 양부모만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등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항목과 함께 결혼이나 이혼, 여성의 직업과 관련된 태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1〉 해외 사회조사의 가족 관련 조사항목 사례

조사	영역	조사항목
ISSP	가족규범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한부모 및 동성부모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	아동돌봄/노인부양 제공자(비용), 돌봄노동시간, 남녀 성역할, 가족 주기에 따른 여성의 직업, 학령전 아동가정의 부부간 직업, 일과 가정 균형, 가사노동 시간, 집안일 역할 분담, 의사결정권,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권, 가족생활만족도,
EASS	가족규범	가부장적 의식에 대한 태도, 결혼가치관
	가족생활	가족돌봄과 가족 간 지원, 집안일 분담, 가족생활(식사시간, 여가활동)
WVS	가족구성	혼인 및 자녀수
	가족규범	엄마의 직업에 대한 태도,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캐나다	가족구성	가족구성, 동거와 분거가족
	가족형성	가족형성 배경, 출산
	가족생활	역할분담, 의사결정권, 일-가정양립, 직업
대만	가족구성	가족구성과 배경
	가족규범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	가족 간 지원/교류, 성역할 및 가사분담,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갈등
이스라엘	가족규범	가족과 성역할 태도,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
	가족생활	가족구성원 간 지원/접촉/돌봄, 가족문제, 가사분담, 일-가정양립
영국	가족구성	가족의 구성원, 자녀(입양, 의붓자녀)
	가족형성	가족형성 배경, 결혼시기, 법적 결혼, 자녀계획
일본	가족규범	선호하는 장묘방법, 이상자녀수, 남아선호
	가족생활	가족 내 성역할
호주	가족생활	가족구성원과의 접촉 및 신뢰 정도
뉴질랜드	가족생활	가족구성원 간 지원 정도

가족 관련 별도의 주제모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종합사회조사나 사회조사의 기본 항목에서 가족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좀 더 간단하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 포함된 가족 관련 조사항목은 혼인상태 및 자녀수와 함께 성역할 관련 태도만을 간단히 조사하고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엄마의 직업에 대한 태도,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라이프스타일조사」에는 ‘가족정보(Family information)’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가족의 구성원과 가족형성 배경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결혼의 시기, 법적 결혼, 자녀(입양, 의붓자녀), 자녀계획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가족가치관이나 성역할, 가족관계와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주의 「종합사회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과의 접촉과 이들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에는 가족 간 지원과 관련되어 가족 구성원의 연령별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해외의 사회조사에 포함된 가족 관련 영역은 대부분 가족생활, 즉 가족 간 교류와 지원 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나라별로 측정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가족구성, 가족형성의 배경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항목을 구성<sup>31)</sup>하지만, 가족가치관이나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 등 가족규범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EASS 주제모듈, 대만의 「사회변화조사」의 경우 가족가치관이나 가부장적 의식에 대한 태도 등 가족규범 관련 항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족 영역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조사되는 항목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가족 간 교류, 가족관계, 가족 내 역할 분담,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이 주로 포함된다.

## 2) 국내 가족 관련 조사항목

국내 승인통계에서 가족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는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등이 있다(<표 5-22> 참조). 이 중 「가족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정주제(예,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등)에 한정된 조사로 조사항목이 매우 상세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가족실태조사」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로 한국 가족의 실상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5년 주기의 조사이다(여성가족부, 2010). 조사내용은 크게 가족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 경제상태, 가족가치관, 가족의 형성과 변화, 가족역할, 일과 돌봄, 가족관계, 생활양식(식생활, 주생활, 주거환경,

31) 예를 들면, 가족구성원에 대해 자녀의 경우 친자, 입양, 의붓자녀인지, 배우자의 경우 현재와 과거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 등 상세히 구성되어 있다.

가정생활문화 등), 정책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각각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이들 항목들 중에 특히 가족의 역할과 돌봄, 가족관계 관련 조사항목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가족의 돌봄 관련 항목은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돌봄실태와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 자녀돌봄의 역할 분담, 자녀 연령대별 돌봄시간, 돌봄방식과 어려움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돌봄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정도과 어려움, 가사분담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가족관계 관련 항목은 부부관계,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부부 간 의사결정권, 의사소통, 관계만족도, 갈등 정도, 지원과 도움 정도 등에 대해 상세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5-22〉 국내 승인통계 중 가족 관련 조사

조사명	작성기관	주기	규모	조사내용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년 (2005년)	2,500가구	가족과 가구일반사항, 경제적 특성, 가족인식,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정생활양식 등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년 (2009년)	26,098가구 유효표본: 16,000가구	다문화가족 대상 직업, 결혼생활, 가족 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년 (2012년)	2,500명	한부모가족 대상 조사로 아이돌봄, 생활, 사회적 지지, 경제활동, 건강, 주거환경, 전 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성가족 패널조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년 (2007년)	9,068가구 10,037명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로 자녀교육, 가사노동, 여성 경제활동 등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3년 (1982년)	18,000가구	결혼 및 가족주기, 임신출산, 모자 보건, 가족관계, 자녀양육, 출산정책, 결혼 및 자녀 가치관

## 다. 항목개발 결과

현재 가족 영역의 조사항목은 전반적으로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이나, 부모부양 및 부모와의 관계 측면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 가족 간 교류(접촉)나 아동돌봄과 관련된 항목은 부족한 편이다. 현재 한국의 가족에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노부모와 성인세대 간 관계이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조사」 항목에서 자녀양육, 가족 간 접촉이나 교류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도 신규지표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간 접촉정도 항목의 경우는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과거와 달리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 교류정도나 지원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자녀의 양육과 돌봄은 가족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며, 저출산이 주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가정 내 돌봄 노동 등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가정 양립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조사」의 가족 영역 조사항목에는 부모부양과 관련된 항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자녀와 관련된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족 영역에서 삭제 검토될 지표는 ‘청소년의 고민’ 항목과 ‘입양에 대한 태도’ 항목이다. 청소년의 고민 항목은 가족 영역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태도 항목은 전체 인구집단을 포괄하기보다는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어, 따라서 응답결과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고,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 따라서 가족 영역에서 신규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항목은 가족 간 접촉 및 교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양육실태,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며, 가족 영역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분거가족과 관련해서 일부 항목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분거가족 관련 항목

가족구성을 측정하는 항목인 분거가족 관련 항목은 기러기 가족, 주말부부 등의 증가추세를 보여주는 조사항목이다. 현재 분거가족의 여부, 국내외 거주,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따로 살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조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 영역의 전문가 자문 결과 분거가족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이에 대한 추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분거가족의 경우 떨어져 사는 가족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는 가족 생활과 가족의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 항목을 신규로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거주여부에서 보기항목을 추가하여 국내거주지를 시간거리별로 나누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분거가족의 만나는 횟수**

Q.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국내외 거주여부,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따로 살고 있는 기간, 만나는 횟수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국내외 거주여부 (보기1 참조)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보기2 참조)	따로 살고 있는 기간 (보기3 참조)	만나는 횟수 (보기4 참조)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 1) 보기1: ① 국내(2시간 이내)    ② 국내(2-3시간)    ③ 국내(3-4시간)  
          ④ 국내(4시간 이상)    ⑤ 국외
- 2) 보기2 : 기존 조사항목 동일
- 3) 보기3 : 기존 조사항목 동일
- 4) 보기4 : 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② 한 달에 두 번    ③ 한 달에 한 번  
          ④ 두 달에 한 번    ⑤ 세 달에 한번    ⑥ 6개월에 한 번 이상

(기존 「사회조사」 항목 참고하여 구성)

**2) 가족 간 접촉 및 교류 관련 항목**

가족 간 접촉 및 교류 항목은 사회지표에서 신규지표로 제안하고 있으며,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항목으로 사회조사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 항목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가족실태조사」에서 부부 간, 부모와 성인자녀,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교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조사주기가 5년이어서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조사주기가 너무 긴 단점이 있다. 가족 간 교류와 접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질문항목이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크게 부모, 자녀,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되는 가족 간 교류 관련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배우자 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거나 간접적 접촉(전화, 우편)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부부 간 대화시간, 청소년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로 측정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따로 사는 부모, 형제자매, 성인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간접적 접촉을 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사회조사」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과 따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과 얼마나 자주 만나고, 전화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대만의 「사회변화조사」에서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부모님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간접적 접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의 조사사례에서 보면 따로 살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이나 전화 등의 빈도는 조사 되는 사례가 많지만, 같이 거주하는 가족과의 교류 정도는 「가족실태조사」에서 대화시간이 충분한지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과의 교류 정도도 가족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모와의 교류' 항목에 성인자녀를 추가로 포함하여 항목을 구성하고<sup>32)</sup>, 별도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간 대화의 충분 정도에 대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한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는 양적인 대화시간보다는 가족 구성원별로 대화가 얼마나 충분한지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대화시간보다는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대화의 충분 정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 따로 사는 가족 간의 교류

Q. 귀하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 가족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십니까?  
(전화통화에는 문자, 화상채팅, 우편, 메일 등 포함)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두번	한 달에 한 두번	1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부모님과의 만남						
성인자녀와의 전화통화						
성인자녀와의 만남						

(기존 「사회조사」 항목 참고하여 동일하게 구성)

• 같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교류

Q. 귀하는 현재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간에 대화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구성원과의 대화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충분	대체로 충분	조금 부족	매우 부족	해당없음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					

(「가족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

32) 부모님의 범위를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세분화시키면 더 의미있는 자료 산출이 가능할 것이나 기존 조사항목과의 시계열과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세분화시키지 않았다.

### 3) 자녀양육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없다. 다만 기존에 자녀양육실태 파악을 위해 복지 영역에서 만 10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과 초등학생의 생활실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 삭제되었다. 자녀양육실태나 이에 대한 태도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에서 좀 더 다양한 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관계도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로 자녀의 돌봄이나 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태도나 실제 자녀 돌봄 실태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양육실태를 보여주는 항목의 경우 외국의 사회조사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자녀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정도의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아동돌봄에 대한 항목이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자세히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 기관과 이용시간에 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된 항목은 ISSP의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에서 자녀에 대한 태도<sup>33)</sup>, 돌봄 노동시간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회조사」에서는 자녀에 대한 태도(자녀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한다 등)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sup>34)</sup>,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정도(대학 교육비, 결혼준비비용, 결혼 후 도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sup>35)</sup>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미취학 아동을 낳 동안에 주로 누가 또는 어디에서 돌보고 있는지로 구성하여, 기관 이용여부와 함께 낳 동안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관을 이용할 경우 얼마나 이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 
- 33)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 ①자녀는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②자녀를 가지는 것은 부모의 자유를 방해한다, ③자녀는 부모에서 재정적 부담이다, ④자녀를 가지는 것은 부모의 고용기회를 제한한다, ⑤자녀를 가지는 것은 사회적 지위(존경)를 높일 수 있다.
- 34)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①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②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③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④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⑤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⑥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 35)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①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②자녀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③자녀의 안전/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④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⑤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⑥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⑦체력적으로 힘이 부친다, ⑧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 이용 및 시간**

Q1.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현재 귀 닥 자녀(취학전 아동)는 낮 동안에 주로 누가 (어디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첫째아이(     ), 둘째아이(     ), 셋째아이(     )

- ① 자녀의 부모    ② 자녀의 조부모    ③ 기타 가족, 친인척
- ④ 베이비시터, 가정부, 이웃사람    ⑤ 혼자 또는 아동끼리 보냄
- ⑥ 유치원        ⑦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⑧ 학원
- ⑨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⑩ 기타

Q1-2.(6번부터 9번 선택,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 자녀가 이용하는 하루 평균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첫째아이(     ), 둘째아이(     ), 셋째아이(     )

(기존 「사회조사」 항목과 「가족실태조사」 를 참고하여 구성)

자녀에 대한 태도 관련 항목은 자녀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가족실태조사」 와 ISSP 조사항목, 그리고 2008년 보고서인 『사회조사 항목개발』 에서 제시되었던 항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 **자녀에 대한 태도**

Q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다					
2. 한 명 이상의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3.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4.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5. 자녀양육을 위해서라면 나는 직장을 포기할 수 있다.					

(ISSP, 「가족실태조사」 를 참고하여 구성)

**3)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주요 시점이 결혼과 출산이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나, 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가족 관련 조사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이다<sup>36)</sup>.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ISSP의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에서 일-가정 양립(자녀의 연령에 따른 엄마의 취업시간), 이스라엘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직장 일 때문에 가정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반대로 가정 때문에 직장일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으며,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sup>37)</sup>,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정도(매우 균형적이다~매우 불균형하다), 일상생활에서 일-가정 양립 정도<sup>38)</sup>,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필요한 제도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조사」를 참고하여 지난 6개월간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sup>39)</sup>.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여기에는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 일-가정 양립

Q1-1. (직장인 대상) 귀하는 지난 6개월간 직장업무 때문에 가정생활에 소홀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Q1-2. (직장인 대상) 귀하는 지난 6개월간 가정생활로 인해서 직장 업무에 소홀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자주 있었다    ② 가끔 있었다    ③ 거의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 「사회조사」를 참고하여 구성)

- 36) 현재 노동 영역에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 정도,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항목이 있으나, 조사시기가 가족 영역과 달라서 가족 영역 조사항목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 37) 보기항목: 자녀양육 부담, 가사부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노부모 부양, 업무의 과중함, 남녀 불평등한 근로환경과 차별적 관행, 기타, 어려움 없음
- 38) 각 항목을 경험한 정도: ①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②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④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⑤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⑥가사나 자녀양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다, ⑦가족적 책임 때문에 상관이나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 ⑧가사/자녀양육/가족원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⑨가사/자녀양육/가족원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⑩가사/자녀양육/가족원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처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⑪나는 현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취하고 있다.
- 39) 가족 영역 전문가 자문 결과: 1년간의 상태를 묻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측면이 있고, 사회 조사의 시기가 매년 동일하다면 6개월 또는 3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임

〈표 5-23〉 가족 영역 조사항목

내용	항목	질문내용	조사 대상	비고
가족 구성	분거가족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여부/거주지, 이유, 기간, <b>만나는 횟수</b>	가구주	추가
가족 가치관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5점 척도)	전체	기존
	재혼에 대한 견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5점 척도)	전체	기존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5점 척도)	전체	기존
	입양에 대한 견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전체	삭제
	결혼생활 견해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7개)	전체	기존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대상	전체	기존
	부모의 노후 생계 부양자	가족중에 누가 부모님의 노후생계를 돌보아야 하는지	전체	기존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5점척도)	전체	신규
가족 생활	가사분담태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전체	기존
	가사분담실태	실제 가사분담 실태	부부	기존
	부모생존여부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지 여부		기존
	부모생활비 주제공자	부모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는지	가구주 배우자	기존
	부모와 동거자	부모님은 누구와 살고 계신지		기존
	미취학 아동 보육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낮시간동안 돌보는 사람, 기관	가구주	신규
	보육시설 이용시간	미취학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시간	가구주	신규
	일-가정 양립	직장(가정생활) 때문에 가정생활(직장)에 소홀한 경험	전체	신규
가족 관계	부모동거 여부	부모님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지	가구주 배우자	기존
	부모와의 교류	부모님과 전화통화와 만남 빈도		기존
	자녀와의 교류	성인자녀와의 전화통화와 만남 빈도		신규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가족생활전반/ 배우자/ 자녀/ 자기부모/ 배우자 부모 /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전체	기존
	청소년의 고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청소년의 고민 상담자	만 15-24세	삭제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신규개발 항목이고, 음영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존항목임

## 5. 환경 영역

### 가. 환경 영역의 측정틀과 조사항목

#### 1) 측정틀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포함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세기 후반 이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통계개발원·한국사회학회, 2011). 국제적으로는 환경을 사회발전의 3대 축(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발전)의 하나로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표의 개발과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 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틀은 5개 하위 영역인 '오염물질 배출, 자연자원 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로 구성<sup>40)</sup>한다(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우선 오염물질 배출은 온실가스, 방사성폐기물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영역이고, 자연자원 이용은 물, 에너지 등 자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생활환경은 공기, 물, 토양 등의 오염도와 환경체감도 등 삶을 영위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역이고, 생태환경은 산림면적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등 생태계의 환경상태를 제시하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는 상/하수도 보급률과 환경 관련 지출 등을 파악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5개 하위 영역에서 생활환경과 환경관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대부분 객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활환경과 환경관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주관적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지표 체계개편 내용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환경' 영역 개편의 중점사항은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낮은 지표는 제외하고,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슈(예. 신재생에너지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개편된 지표 체계에서 주관적 지표는 생활환경 영역에 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명은 '성, 연령 및 지역별 환경 체감도'와 '농산물오염에 대한 불안감 정도'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2012년 지표개편

40) 이러한 하위 영역의 구성은 압력-상태-반응 모형을 활용한 것으로, 압력은 오염물질 배출과 자연자원 이용, 상태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 그리고 반응은 환경관리에 해당한다.



이전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회조사」의 체감환경과 농약오염 항목의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지표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주관적 지표 중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3개는 삭제되었다. 삭제된 지표는 모두 환경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환경오염 방지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이다. 이러한 세 가지 지표는 모두 「사회조사」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왔다. 이 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지표는 이미 지난 2010년 「사회조사」에서 관련 조사항목이 응답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자료 확보가 어려워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삭제되었다. 그러나 지표체계 개편 과정에서 함께 삭제된 나머지 두 지표를 「사회조사」의 조사항목에서도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5-2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환경 영역의 조사통계 활용 지표

하위영역	지표통계표명	신규여부	출처
생활환경	성, 연령 및 지역별 환경체감도	기존	사회조사
	농산물오염에 대한 불안감 정도	기존	사회조사
환경관리	환경오염 방지노력	삭제	사회조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삭제	사회조사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의향	삭제	사회조사

### 3) 기존 조사항목

「사회조사」 환경 영역의 2012년 조사항목은 총 7개로 환경오염인식 관련 5개 항목과 환경보호노력 관련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5-25> 참조). 우선 환경오염인식 영역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대해 제시된 각 분야별 오염정도(2010년 신설), 1년 전과 비교하여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의 각 분야별 변화정도, 향후 우리나라 환경 개선정도(2008년 신설), 환경변화 관련 각 분야에 대한 불안정도(2008년 신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농약오염으로 인한 불안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환경보호노력 영역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과 제시된 각 분야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만족도와 불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태도 및 실천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25〉 환경 영역 2012년 조사항목

하위 영역	조사항목
환경오염인식	현재 체감환경,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 향후 환경상황, 환경문제, 농약오염
환경보호노력	환경보호 비용 부담, 환경오염 방지 노력

한편 과거에는 조사되었으나 변경과정에서 삭제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대기오염의 원인’ 항목(2010년 삭제)은 대기오염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삭제되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항목(2010년 삭제)은 응답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자료 확보가 어려워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삭제되었다. 또한 가구주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참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들(2008년 삭제)은 관련 제도의 정착으로 조사 필요성이 낮아져서 삭제되었다.

## 나. 국내외 환경 관련 조사 현황

### 1) 국제 및 해외의 조사항목

지금부터는 국제조사 및 해외의 사회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환경 관련 조사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에 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는 사례는 국제 수준의 경우 ISSP와 「세계가치관조사(WVS)」가 있고, 해외의 사회조사 중에서 환경 영역이 포함된 사례는 일본의 「종합사회조사」,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 독일의 「종합사회조사」와 대만의 「사회변화조사」 등이 있다. 이 중 독일의 「종합사회조사」와 대만의 「사회변화조사」는 위에서 살펴본 ISSP의 2010년 환경 주제모듈을 활용<sup>41)</sup>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조사 및 해외의 사회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들은 주로 국내 「사회조사」와 유사한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 정도와 나아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환경가치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및 해외의 사회조사에서 환경 영역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26>과 같다. ISSP에서는 환경 영역에 대한 주제모듈을 2010년에 조사하였다. ISSP의 환경 영역은 다른 조사들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측정되며, 항목의 수 또한 많다. 환경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환경가치관, 환경오염인식, 환경보호 노력에 대한 항목은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한 항목도 다수

4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2010년에 동일한 주제모듈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가치관과 관련된 측정항목은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와 환경과 현대 과학/경제성장/인류 발전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있다. 환경 오염인식과 관련된 항목은 대기오염, 농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의 환경에 대한 위험정도가 있다. 환경보호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적 부담 의향과 노력 정도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환경문제와 환경정책과 관련된 일부 조사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여러 가지 사항별 환경에 대한 위험정도,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 부담의향 및 노력 정도 등의 항목은 기존의 국내 「사회조사」에 있는 관련 항목과 유사하다. 한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한 조사항목들은 측정의 중요성 측면에서 「사회조사」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정도와 응답자가 생각하는 환경보호 정책 등은 조사의 필요성이 낮다.<sup>42)</sup>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은 환경가치관 영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와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태도 등이다.

「세계가치관조사(2011)」에서 환경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 여부, 환경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것이 있다. 일본의 「종합사회조사(2008년)」에 포함된 환경 관련 조사항목은 환경보호 행위(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사용, 소풍백 사용 등) 실천 정도, 경제성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여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불편한 생활에 대한 동의 정도, 환경보호와 기업윤리에 비추어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결정 여부가 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2010년)」에서는 ‘물리적인 환경(physical environment)’ 영역에서 가구의 재활용 수준, 에너지와 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정도 및 이유에 대한 항목을 검토하였다. 한편 물리적인 환경 영역에는 이 외에도 편의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만족도, 행정서비스(물 공급, 쓰레기 수거 등) 만족도, 자연환경(숲, 호수 등) 접근성 및 만족도, 가구의 자연 재해 대비 여부 등의 항목들이 존재하나, 「사회조사」의 환경 영역 조사내용과 관련성이 낮으므로 검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가치관조사(2011)」와 일본 및 뉴질랜드의 조사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 관한 조사항목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있는 측정항목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2011)」와 일본에서 포함하고 있는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항목은 「사회조사」에 부재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4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조사」에서 2010년에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관한 조사항목인 대기오염의 원인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항목이 각각 삭제되었다. 대기오염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응답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삭제 근거이다.

〈표 5-26〉 해외 사회조사의 환경 관련 조사항목 사례

조사	영역	조사항목
ISSP 환경 모듈	환경가치관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 환경과 현대 과학/경제성장/인류 발전의 관계에 대한 태도
	환경오염인식	여러 사항(대기오염, 농약 등)별 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
	환경보호노력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 부담(비용, 세금, 생활수준 저하) 의향,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력(재활용, 물 절약, 환경단체 가입 등) 정도, 환경보호 위한 국제적 합의 필요성과 책임 정도에 대한 태도, 한국의 세계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환경문제	중요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원인/해결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환경정책	환경보호 정책마련에 대한 국민, 기업과 정부와 관계에 대한 태도, 한국 기업/산업과 사람들이 환경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WVS	환경가치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
	환경보호노력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 여부, 환경운동 참여 여부
일본	환경가치관	경제성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여부 동의 정도
	환경보호노력	환경보호 행위 실천 정도, 특정 기업상품 구매여부, 환경오염 방지 위한 불편감수 여부
뉴질랜드	환경보호노력	재활용 수준, 에너지와 물 사용을 각각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 및 이유

## 2) 국내 환경 관련 조사항목

국내의 환경 관련 조사는 「녹색생활조사」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외의 다른 조사들은 대부분 전국의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특정 내용을 주제(예. 화학물질배출량, 폐기물 등)로 하거나,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정 환경(예. 부산시 수돗물 음용 등)에 대한 조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녹색생활조사」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과거 국가 승인통계였다가 제외되었으나, 현재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국내의 사례가 부재하여 함께 검토하였다.



〈표 5-27〉 국내 승인통계 중 환경 관련 조사

조사명	작성기관	조사주기	표본규모	조사내용
녹색생활 조사	통계청	2년 (2011년)	9,700가구 (20세 이상)	가정, 교통, 직장 각 부문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현황 및 의식, 환경이슈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sup>1)</sup>	환경부	5년 (1995년)	1,500명 (20세 이상 65세 이하)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주체들의 노력에 대한 인식, 환경 분야(자연보전, 대기, 수질 등)별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개발과 환경보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주: 1) 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함

우선 「녹색생활조사」는 국민들의 녹색생활<sup>43)</sup>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내용은 크게 기본적인 개인과 가구 관련 사항과 가정, 교통, 직장 각 부문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현황 및 의식, 그리고 환경이슈에 대한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에 실시된 조사항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부문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 저탄소 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의 구매 노력 정도, 물 절약 노력정도, 전기 절약 노력정도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 부문은 자동차 보유 및 요일제 참여, 자동차 관리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 부문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통근 수단, 직장에서 개인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이슈에 대한 조사항목은 기후변화 영향과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에 대한 태도, 녹색생활 실천여부와 실천하는 이유 및 하지 않는 이유 등이다.

여기서 저탄소 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의 구매노력 정도와 녹색생활 실천여부 등은 「사회조사」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 항목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항 중 ‘녹색제품(친환경, 우수, 재활용,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입한다’와 유사하다. 그리고 현재 「사회조사」에는 부재한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에 대한 태도 등의 항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환경부에서 일반 국민과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요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환경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한 조사이다. 2008년에 실시된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상황에

43) 조사에서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계메타 DB).

대한 인식,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주체들의 노력에 대한 인식, 환경 분야(자연보전, 대기, 수질 등)별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개발과 환경보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환경 분야별로 집중된 조사항목들은 현재 「사회조사」에서 다루기 어려우며 「사회조사」의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포함된 항목 중 전반적인 태도나 포괄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항목 위주로 검토하였다(심수진·이희길, 2009). 환경 분야 조사의 대표적인 조사항목인 분야별 환경오염 정도, 향후 환경상황 개선, 환경오염 방지 노력, 환경보호 비용 부담 등은 기존의 「사회조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 등이다.

#### 다. 항목개발 결과

지금까지 「사회조사」에서 추가나 삭제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결과와 현재 국내 「사회조사」의 조사항목 그리고 환경 관련 국내외 조사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사회조사」 환경 영역의 조사항목은 다양한 생활환경 오염 및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부재하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앞서 살펴본 국제 및 해외의 조사사례에서도 대부분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오염인식 영역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항목의 질문방식과 구성내용을 새롭게 부각되는 환경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환경의 개선 정도 항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향후 개선 정도를 묻는 항목으로 개인들이 개선 정도에 대해 응답하기 쉽지 않으며, 실제 환경상황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항목에 비해 중요도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노력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에서 '환경오염 방지노력'과 '환경문제 개선 비용부담'의 항목은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조사」의 항목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들은 국제 및 해외의 조사사례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시계열 유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기존의 환경오염 방지노력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노력행위들에 대해 다른 조사사례에 비추어 중복되거나 혹은 새로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 영역의 조사항목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환경오염인식과 환경보호노력 영역과 별도로 '환경가치관'을 신규 영역으로 추가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태도 관련 항목을 신규 항목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오염인식 영역은 기존 조사항목인 환경문제에 대해 불안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 구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노력 영역에서는 현재 환경오염 방지노력 항목의 구성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한다.

### 1) 환경에 대한 관심

구체적인 환경오염이나 환경보호가 아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변화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심수진·이희길, 2009). 그러나 현재 「사회조사」에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부재하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오염인식, 환경보호노력에 대한 영역과 별도로 '환경가치관'을 신규 영역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 첫 번째 조사항목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항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국내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응답자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는 항목이 있다. 이 밖에 ISSP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사항목이 있는데,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하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응답자가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는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 ◦ 환경에 대한 관심

Q. 귀하는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약간 관심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8) 참고)

### 2) 환경과 경제성장

환경에 대한 신규 조사 영역으로 도입한 '환경가치관' 영역의 두 번째 조사항목으로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조사」에 환경과 경제 성장에 대해 조사하는 항목은 없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은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충적인 가치관이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등이 등장함에 따라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발전을 모색하는 태도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양자의 관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고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유사한 조사항목은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국내외 조사 사례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국내의 「녹색생활조사」의 경우 “환경문제 심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환경규제 완화와 경제활성화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4점 척도로 조사한다. ISSP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와 “경제성장은 언제나 환경에 해를 준다”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중 우선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상반되게 제시한 각각의 문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이 환경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제시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다.

따라서 「사회조사」에서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는 신규항목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때 「녹색생활조사」는 승인통계이므로 「사회조사」에서 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면 중복조사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녹색생활조사」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신규항목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 환경과 경제성장

Q. 귀하는 “환경보호 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SSP(2010), WVS(2011), JGSS(2008),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8) 참고)

### 3) 환경문제 불안

환경오염인식 영역의 ‘환경문제’와 ‘농약오염’ 항목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불안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 현재 환경문제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뭄, 홍수 등)’과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등)’이다. 그리고 농약오염 항목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오염으로 인한 불안을 국내산과 수입산 농산물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항목은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길이 축소와 응답의 편의성 차원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추가로 반영하고, 다른 영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유해화학물질(불산 등) 과 방사능물질에 관한 것이다.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연이어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사상자 발생은 물론 주위의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또한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방사능물질 누출에 대한 공포를 대폭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근래 한국 사회에서도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문제 항목에서 ‘유해화학물질(불산 등) 누출’과 ‘방사능물질 누출’ 문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불안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존의 환경문제로 제시되었던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등)’은 유해화학물질 혹은 방사능물질 누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능물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시 기존의 환경문제로 제시되었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뭄, 홍수 등)’는 ‘안전’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2) 결과 ‘자연재해’가 하위영역으로 신설됨에 따라 「사회조사」의 경우도 안전 영역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sup>44)</sup>

한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와 ISSP에도 위와 유사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환경호르몬 등), 지구온난화·기후변화, 환경문제 전반 등’ 총 11개 분야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4점 척도를 측정한다. ISSP에서는 ‘농약이나 화학물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의 상승, 원자력 발전소 등’ 총 7개 사항이 각각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다. 또한 ‘핵 폐기물, 기후변화, 화학물질과 농약, 기타 등’ 총 10개 환경문제들 중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조사한다.

44) 본 보고서의 ‘안전’ 영역에서 자연재해 관련 신규항목을 개발하여 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 환경문제 불안

Q. 귀하는 환경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O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1. 유해화학물질(불산 등) 또는 방사능물질 누출					
2. 농산물에 대한 농약오염					
1) 국내산 농산물					
2) 수입산 농산물					

(ISSP(2010),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8) 참고)

#### 4) 환경오염 방지 노력

「사회조사」의 환경보호노력 영역에서 ‘환경오염 방지 노력’ 항목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시된 각 사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노력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다. 현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녹색제품(친환경, 우수, 재활용, 에너지 절약형제품 등)을 구입한다 등’ 총 7개 분야<sup>45)</sup>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 노력행위들에 대해 다른 조사사례에 비추어 중복되거나 혹은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대한 조사항목은 「녹색생활조사」, ISSP, 「세계가치관조사」 그리고 일본과 뉴질랜드의 조사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승인통계인 「녹색생활조사」에도 에너지 절약형 제품, 저탄소 제품, 환경마크 인증 제품, 친환경 농산물 각각에 대한 구매노력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조사」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 항목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항 중 ‘녹색제품(친환경, 우수, 재활용,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구입한다’와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이 「녹색생활조사」에서 「사회조사」보다 녹색제품 구매 노력정도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녹색생활조사」 역시 2년 주기의 승인통계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조사」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 항목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45) ①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②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③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④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 ⑤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다, ⑥녹색제품(친환경, 우수, 재활용, 에너지절약형제품 등)을 구입한다, ⑦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활동)에 참여한다.

• 환경오염 방지 노력

Q. 귀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O표를 하여 주십시오.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2.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3.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4. 합성세제 사용을 줄인다				
5.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6. 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활동)에 참여한다				

<표 5-28> 환경 영역 조사항목안

내용	항목	질문내용	조사 대상	비고
환경 가치 관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5점 척도)	전체	신규
	환경과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 우선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 (5점 척도)	전체	신규
환경 오염 인식	현재 체감환경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의 각 분야별 오염 정도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 진동, 녹지 환경(공원·가로수)(5점 척도)	전체	기존
	1년 전과 비교한 체감환경	1년 전과 비교한 살고 있는 지역 환경의 각 분야별 오염 정도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 진동, 녹지 환경(공원·가로수)(5점 척도)	전체	기존
	향후 환경상황	향후 우리나라 환경 개선 정도(5점 척도)	전체	삭제
	환경문제 불안	환경문제 관련 각 분야에 대한 불안 정도 - 유해화학물질(불산 등) 또는 방사능물질 누출, 농산물의 농약오염(국내산 농산물, 수입산 농산물)(5점 척도)	전체	수정*
환경 보호 노력	환경보호 비용부담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에 대한 생각	전체	기존
	환경오염 방지노력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 분야별 노력정도 -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임, 합성세제 줄임, 일회용품 자제, 환경 및 자연 보호운동 참여(4점 척도)	전체	수정*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신규개발 항목이고, 음영처리되지 않은 것은 기존항목임  
(\*항목은 기존의 항목을 구성하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한 것임)

## 제4절 결론

### 1. 요약 및 결론

이 과제는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의 내용을 「사회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실용적인 연구로 기존항목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신규항목 개발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회조사」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관적 지표 작성을 위해 시작된 조사로, 지표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항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사회조사」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주기적인 조사항목의 검토와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4년에 해당되는 조사영역인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5개 영역에 대한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영역별 조사항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측정틀과 지표 체계를 토대로 기존의 「사회조사」 항목을 검토하였다. 각 영역별 추세와 신규항목 개발에 있어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사와 국내의 영역별 전문조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해외 사례의 경우 주로 사회조사에서 개별 영역으로 포함하는 각 영역별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국내 사례의 경우는 각 영역별 전문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항목을 검토하고 신규항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의 각 영역별 승인통계와의 중복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각 영역별 신규항목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사회지표 체계에서 제시된 신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둘째, 다른 조사와 중복이 되더라도 각 영역이 하나의 완결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셋째, 삶의 질 측정에서 필요한 주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영역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사항목을 확정하였다.

개별 영역별로 보면, 보건 영역에서는 건강 측정에서 최근의 관심사를 주로 반영하고자 비만이나 식생활 습관 등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미치료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항목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구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여 학습



동기, 자아존중감, 학습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을 신규로 포함하였고,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항목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은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을 보여주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안전 영역에서는 기존의 조사항목 중 사회지표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은 항목(식품안전, 교통사고 원인)을 삭제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항목을 신규로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안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신규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및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두려움뿐 아니라 발생가능성을 동시에 묻는 항목을 신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영역에서는 가구원수 및 출산율 감소,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성역할 변화 등 급격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인 가족생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의 교류와 돌봄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항목을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환경 영역에서는 기존 조사항목이 주로 환경오염 정도와 환경오염 방지노력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경가치관 관련 항목을 신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환경문제 불안과 환경오염 방지노력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영역별 조사항목들은 2014년 「사회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신규항목들은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신규 항목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제 조사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항목수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영역에 걸쳐 중요도와 필요성을 고려해서 실제 조사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항목들은 다른 승인통계와의 중복여부를 떠나 각 영역의 전반을 측정하는데 있어 필수로 측정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따라서 일부 항목의 경우는 기존의 승인통계와 중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의 영역별 전문조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중복을 피하면서 조사항목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영역별 전문조사들은 그 영역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을 거의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조사」에 포함된 항목들도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중복문제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항목을 제외하게 되면 조사항목의 완결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조사」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마치면서 「사회조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2. 사회조사 발전방안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통계청 「사회조사」와 다른 사회영역별 전문조사와의 중복문제였다. 사회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해당 부처에서도 다양한 영역별 조사를 구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대표성을 구비한 조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에 수행된 『사회조사 항목개발』 과제에서도 이러한 조사항목의 중복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조사」에서 제외된 항목들은 대부분 다른 영역별 승인통계와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되어 왔다. 실제로 현재 5년 전보다 더 많은 조사통계들이 신규로 생겨났다. 예를 들면 보건 영역의 경우 5년 전에도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었으나 조사주기나 표본수 측면에서 「사회조사」가 가지는 대표성으로 차별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현재 「사회조사」 보건 영역의 조사항목들을 거의 다 포괄하면서 1년 주기로 작성되고, 시군구 단위로도 공표되는 대규모 조사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역단위에서 지역사회지표 작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조사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벤치마크 하고 있어 지역사회조사의 경우 거의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역별 전문조사의 구축과 지역단위의 종합사회조사 활성화는 「사회조사」의 위상과 정체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광역단체까지 분해가 가능한, 대규모 종합사회조사로서 지표통계 작성이라는 목적과 위상이 뚜렷했으나, 최근 이런 조사 생태계의 변화로 영역별 전문 조사와는 유사중복의 문제를, 지역사회조사와는 중복문제와 함께 조사결과 불일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중복이 되더라도 조사항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복이 되지 않은 항목만을 유지할 것인가는 「사회조사」의 위상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의 「사회조사」 형태(전체 영역을 둘로 나누어 조사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회조사」만의 차별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자의 경우 다른 영역별 조사들이 표본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별 조사와의 차이점이 없으며, 중복과 예산낭비를 이유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중복을 제외하고는 영역별로 측정이 필요한 중요항목을 포함시킬 수 없어 조사내용에서 자기 완결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조사의 유용성과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기존의 「사회조사」 형태에서는 다른 조사들과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조사」만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다른 영역별 전문조사와 비교해서 「사회조사」가 가지는 차별성은 전체 사회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영역별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조사」의 경우 조사항목수 때문에 전체 10개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보면 전체 10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사회조사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통계청에서 수행되는 사회조사를 보면 캐나다를 제외하고 조사주기는 다르지만 전체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조사항목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공통항목과 일부 영역에 제한된 특별주제 모듈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공통항목은 시계열 유지와 다른 영역들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별 필수항목으로 구성되며, 특별주제 모듈은 심층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즉 사회 전체 영역에 걸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항목 간 비교가능성은 높이면서, 특별주제 모듈을 통해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조사」의 경우 시기에 따라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필요성이 줄어들어 삭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특별주제 모듈을 구성할 경우 시기별 이슈에 맞는 세부항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회조사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ISSP 모듈로 조사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경우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이고, 현재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중복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가 가지는 차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종합사회조사와 같은 조사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사회조사」의 전체 틀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시 조사결과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인지, 조사항목이 얼마나 축소되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제외할 것인지, 특별주제 모듈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존 「사회조사」에서 중복을 이유로 삭제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소방방재청(2009),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용역 보고서
- 심수진·이희길(2009), “사회조사 항목개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 통계개발원(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용역보고서(한국사회학회).
- 통계청·한국사회과학자료원(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 통계청(2012a),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2b), 『사회조사 보고서』

### 2. 웹사이트

- ISSP 홈페이지(<http://www.issp.org>)
- World Values Survey 홈페이지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독일 종합사회조사(GESIS)  
([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allbus/index.htm](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allbus/index.htm))
- 미국 사회조사 (<http://www.norc.org/projects/eneral+Social+Survey.htm>)
- 미국의 가족 및 가구조사 홈페이지(<http://www.ssc.wisc.edu/nsfh/home2.htm>)
- 영국 통계청 (<http://www.statistics.gov.uk/>)
- 유럽사회조사(ESS)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Academia Sinica (<http://www.ios.sinica.edu.tw/sc/en/home2.php>)
- 이스라엘 통계청 (<http://surveys.cbs.gov.il/Survey/surveyE.htm>)
- 일본 사회조사 (<http://jgss.daishodai.ac.jp/english/eiframe/englishtop.html>)
-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ca/>)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종합사회조사 웹사이트(<http://kgss.re.kr>)
-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

### 3. 참고 조사표

- 국민건강영양조사(2013),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국민안전생활 실태조사(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피해실태조사)
- 국민안전의식조사(2005), 소방방재청·서울대사회발전연구원·한국안전학회.



녹색생활조사(2013), 통계청.  
사교육비조사(2012), 통계청.  
사교육의식조사(2012), 교육부.  
전국가족실태조사(2010), 여성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2),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200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중단(201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8), 환경부

Eurobarometer(2011), European Commission.  
General Lifestyle Survey(2011),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UK).  
General Social Survey(1991), Cycle 6 : Health, Housing, Family and Social Statistics Division,  
Canada.  
General Social Survey(2011), Cycle 25: Family, Statistic Canada.  
General Social Survey(2002, 2006, 201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German General Social Survey(1998), 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  
German Welfare Survey(1998),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Research Unit · Survey  
Research Center Mannheim Department.  
Israel Social Survey(2009, 201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iwan Social Change Survey(2010, 2011), Academia Sinica.  
World Values Survey(wave 6. 2010-2012), The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WVSA).

## 부록 1. 국내외 사회조사 사례

###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sup>46)</sup>

- 창립연도 : 1984년
- 참여국가 : 48개국 참가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와티아, 키프러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대만,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미국, 베네수엘라
- 표준배경변수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지역, 고용지위, 소득 등의 20여 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부표 5-1〉 ISSP 특정 주제모듈(약 10년 주기)

분야	조사 시행연도			
	1985	1990	1996	2006
정부의 역할	1985	1990	1996	2006
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와 지원체계)	1986	2001	-	-
사회 불평등	1987	1992	1999	2009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1988	1994	2002	2012
직업	1989	1997	2005	-
종교	1991	1998	2008	-
환경	1993	2000	2010	-
국가 정체성	1995	2003	2013(예정)	-
시민권	2004	2014(예정)	-	-
여가시간과 스포츠	2007	-	-	-
건강	2011			

46)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 홈페이지(<http://www.issp.org/index.shtml>)

## 2)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 조사주관기관 : 미시건 대학
- 최초실시연도 : 1980년(5년 주기)
- 조사내용 : 일상생활, 만족도, 가족/결혼생활, 사회신뢰, 환경문제, 사회참여, 공동체, 직업, 정치, 종교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주로 개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성향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표 5-2〉 세계가치관조사(2010-2012, Wave 6.)의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일상생활	항목별 중요도(가정/친구/여가/정치/직장/종교),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경제상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자율성, 주관적 계층의식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태도, 부모의 의무, 자녀의 가정교육 항목, 혼인상태, 자녀여부
정치	정치 관심도, 정치적 행동 여부, 정치방향, 통치방법에 대한 가치관, 민주주의 발전방식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계와 국가 간 문제, 정당의 선호도, 정치성향(좌파, 우파), 선거 여부 등
환경	환경과 경제성장 태도, 환경운동 참여여부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이용수단, 컴퓨터 이용 등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신뢰, 집단별(가족, 이웃, 아는 사람, 타종교인 등) 신뢰정도, 조직/단체에 대한 신뢰, 희망하는 이웃, 국가에 대한 자부심, 노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사회단체 참여여부
사회안전	범죄피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태도 등
일	여성과 일에 대한 태도, 일자리 평등, 근무시간, 선호하는 일 종류, 일에 대한 태도 등
종교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종교여부, 종교활동 참여정도, 신의 중요도, 종교 행위 여부, 신에 대한 태도 등

### 3)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sup>47)</sup>

- 조사실시기관 : European Science Foundation
- 최초실시연도와 조사주기 : 2002년(2년 주기)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내용 : 매년 조사되는 핵심문항과 추가주제
- 핵심문항 : tv 시청, 사회 신뢰, 정치(정치 관심도, 신뢰, 선거 및 정치참여 정도, 정당선호, 정치성향 정도, 민주주의 평가 등), 주관적 웰빙, 주관적 건강평가, 사회 안전, 범죄피해, 사회적 배제, 종교, 차별, 종교, 이민,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 구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지역, 교육, 직업, 소득, 근무시간 등)

〈부표 5-3〉 유럽사회조사 주제모듈

연도	추가 주제
Round 1 (2002년)	시민(citizenship), 이민(immigration)
Round 2 (2004년)	일, 가족과 웰빙(work, family and wellbeing), 건강과 돌봄(health care seeking), 경제적 도덕성(Economic morality),
Round 3 (2006년)	개인과 사회의 웰빙(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생활시간(the timing of life)
Round 4 (2008년)	노인과 노인차별에 대한 태도(attitudes to age and ageism), 복지(welfare)
Round 5 (2010년)	공정성에 대한 신뢰(trust in justice), 일, 가족과 웰빙(work, family and wellbeing)
Round 6 (2012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understandings and evaluations of democracy), 개인과 사회의 웰빙(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자원봉사, 심리적 번영, 정서경험, 주관적 계층 등



47) 유럽사회조사 홈페이지(<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4) 한국 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조사기관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미국 GSS의 핵심반복설문의 골격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 추가

〈부표 5-4〉 KGSS의 연도별 주제모듈

연도	ISSP 주제모듈	EASS 주제모듈	특별 주제모듈
2003	국가 정체성	-	노동지향,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2004	시민권	-	사회관계와 지원체계
2005	노동지향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2006	정부의 역할	동아시아의 가족	-
2007	레저와 스포츠	-	문화산업과 소비
2008	종교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동아시아 문화	-
2009	사회불평등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2010	환경	건강	-
2011	건강	-	-

자료: 김상욱 외(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부표 5-5〉 KGSS의 반복되는 조사항목

조사내용	질문내용
정치	국가자긍심, 정치성향, 정치만족도, 정치전망, 지지정당, 선호정당, 정당 평가, 국정운영 평가,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민족 통일 문제 등
경제	경제만족도, 경제전망, 자본주의의 이미지, 대기업의 이미지 평가, 대기업에 대한 정책평가,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신문구독 및 TV 시청,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노력에 대한 평가, 인터넷/이메일/휴대전화의 사용행태 등
배경변수	응답자/배우자/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성과 가구형태, 가구원수, 동거/비동거 가족수, 가족이 아닌 동거인수, 가구원 중 취업자수, 종교, 가계소득, 계층귀속, 취업상태, 고용지위, 직업, 산업 등

자료: 김상욱 외(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 5) 호주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up>48)</sup>

- 조사실시기관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2002년(4년 주기)
- 조사내용 : 매년 반복되는 핵심주제와 추가 주제모듈
  - 핵심주제(12개 분야) : 인구, 건강, 주거(housing), 교육, 직업, 소득, 재정적 부담 (Financial stress), 자산과 채무(Assets and liabilities), 정보기술, 교통, 가족과 공동체, 범죄 및 사회안전
  - 2002년 추가주제 : 정보기술, 문화와 여가
  - 2006년 추가주제 : 사회자본, 자원봉사, 이민자의 비자
  - 2010년 추가주제 : 사회적 혼란(social disorder), Experience of homelessness



---

48)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abs.gov.au>)

### 6) 독일의 종합사회조사(German General Social Survey)<sup>49)</sup>

- 조사실시기관 : GESIS(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1980년, 2년주기(주제별로는 10년 주기)
- 조사내용 : 공통문항과 특정 주제, ISSP 동일 주제(<부표 5-6>)
  - 공통문항 : 인구사회학적 항목과 그 외에 가치관, 사회귀속, 정치적 관심, 정당/조합가입, 종교 등
  - 특정주제 : 한두 개의 유사한 메인 주제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

<부표 5-6> 독일 종합사회조사의 연도별 조사주제

연도	특정주제	ISSP 주제
1980	• 정치와 권한, 친구관계 네트워크	
1982	• 종교와 사회적 관점	
1984	•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1986	• 교육과 문화적 수준(Education and cultural skills)	사회 네트워크
1988	• 정치적 참여와 태도	가족과 성역할 변화
1990	• 규제와 이상행동(Sanctions and deviant behaviour) • 정치와 권한 • 친구관계	정부의 역할 II
1991	• 가족 • 직업 • 불평등 • 정치 • 독일통일에 대한 태도	종교
1992	• 종교와 세계적 관점 • 통일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 II
1994	•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I
1996	• 독일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태도	정부의 역할 III
1998	• 정치적 참여와 태도 • 미디어 이용 • 라이프 스타일	
2000	• ALLBUS-Survey-Program 전체 항목	환경, 사회적 불평등 II
2002	• 종교, 세계적 관점 • 가치	가족, 사회 네트워크
2004	• 사회적 불평등 • 건강(health and digital divide)	시민권, 국가 정체성
2006	• 독일에서 다른 민족(인종)에 대한 태도	직업, 정부의 역할 III
2008	• 정치적 참여와 정치 문화, 사회자본	여가시간과 스포츠, 종교 III
2010	• 사회 네트워크 • ALLBUS-Survey-Program 전체 항목	사회적 불평등 IV, 환경 III
2012	• 종교와 세계적 관점(world view)	건강, 가족, 일, 그리고 성 역할

49) GESIS([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allbus/index.htm](http://www.gesis.org/en/social_monitoring/allbus/index.htm))

## 7)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up>50)</sup>

- 조사실시기관 :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1972년(2년 주기)
- 조사내용 : 공통핵심설문과 ISSP 주제 모듈
  - 공통핵심설문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장배경,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사회적 신뢰,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 가계/계층, 형평, 가족/결혼, 수입/재산, 종교, 세계관/인생관, 교육, 노인부양, 일상생활, 건강, 낙태, 자살, 성관계, 직업/고용 등
  - 주제 모듈 : 특정한 시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중요성이 각별히 부각되는 사안들을 선정하여 심도높은 분석을 추구하려는 목적



50) 미국 사회조사(<http://www.norc.org/projects/general+Social+Survey.htm>)

### 8) 이스라엘의 사회조사(Israel Social Surveys)<sup>51)</sup>

- 조사실시기관 :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2002년(매년 조사)
- 조사내용 : 핵심항목과 연도별 특정주제
  - 100개의 핵심 항목 : 가구구성원에 대한 질문항목, 출산, 주거, 자동차 소유, 돌봄, 종교, 고용, 경제적 상황, 기술(교육, 언어, 전공, 컴퓨터 이용 등) 가족과 친구 관계, 자원봉사활동, 범죄피해(victimization), 웰빙과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 (만족감)
  - 특정 주제: 매년 한 개 또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핵심항목보다 세부적인 문항으로 구성됨

〈부표 5-7〉 이스라엘 사회조사의 연도별 특정주제

연도	특정주제
2002	연금과 퇴직금 저축
2003	복지의 다차원적 측정
2004	부모의 고용과 0-13세 아동의 사교육(non-compulsory) 형태
2005	고용에 대한 태도와 노동시장 참여
2006	돌봄에 대한 태도와 무보수 돌봄
2007	복지, 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008	사회적 이동
2009	가족관계, 종교의식
2010	건강과 삶의 방식, 기술 사용
2011	생활시간 활용, 언어 사용

51) 이스라엘 통계청 홈페이지(<http://surveys.cbs.gov.il/Survey/surveyE.htm>)

9) 일본의 종합사회조사(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s)<sup>52)</sup>

- 조사 실시기관: Institute of Regional Studies, the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 최초 실시연도와 주기 : 2000년(매년 조사)
- 조사방법 : 면접식 조사항목과 자기기입식 조사항목 병행
  - 면접식 조사는 하위 항목이 많은 복잡한 문항으로 구성되고, 자기기입식 조사는 간단한 항목이면서 개인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 조사내용 : 공통항목과 특정 주제모듈로 구성
  - 공통항목: 응답자의 직업, 가구 구성, 기본태도, 매일의 활동, 가치관과 행동패턴, 정치적 태도 등
  - 특정 주제: 구체적인 주제로 초점을 맞추어 구성

〈부표 5-8〉 일본 종합사회조사의 연도별 특정주제

연도	특정주제	
	면접식	자기기입식
2000	직업훈련	매장, 애완동물, 소년법, 사형제도, 체벌, 장기기증, 여성정치인, 죽음 이후 삶, 폭력에 의한 피해, 도덕성 등
2001	직업훈련	2000년 항목, 가족돌봄, 복권제도
2002	전공, 고등교육 진학, 교육비, 주거비용	소비행동, 자원봉사, 영어학습, 학습의 의미, 학교교육, 도박
2003	통근통학 시간, 휴일	A: 소비행동, 영어학습, 소년법, 집단따돌림, 도박, 대리모 등 B: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적 태도
2005	통근통학 시간, 휴일, 자동차 소유, 직업가치관	자원봉사, 기부, 신용카드, 소비 대출, 상담, 소년범죄, 유전자 변형 식품, 자동차 소유, 노인들의 삶
2006	생활계획, 부모자녀 관계, 교육비,	A: 직업목표, 교육태도, 외국어, 개발도상국 원조, 자원봉사, 방법, 자살 등 B: EASS 가족 모듈
2008	국제무역, 부모로부터 교육	A: 정부역할, 경제적 불안, 학대, 혼육, 소년법, 사형제도, 건강, 환경과 경제 성장, B: EASS 문화 모듈
2010	직업	A: 정부역할, 정치태도, 영어능력, 가족 B: EASS 건강 모듈

52) 일본 사회조사(<http://jgss.daishodai.ac.jp/english/eframe/englishtop.html>)

### 10) 대만의 사회변화조사(TSCS: Taiwan Social Change Survey<sup>53)</sup>)

- 조사실시기관 : Academia Sinica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1985년, 매년(주제별 5년 주기)
- 조사내용 : ISSP 주제 모듈 포함(<부표 5-9>)
  - 기본항목 :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정도, 직업 등

<부표 5-9> 대만 사회변화조사의 연도별 조사 주제

조사연도	주기	주제	주제
1985	First wave	국제관계, 매스커뮤니케이션, 경제태도, 정치참여	레저, 종교, 가족, 정신건강
1990	First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일, 정치, 건강	레저, 종교, 가족, 정신건강
1991	Second wave	가족, 교육	정신건강
1992	Third wave	사회계층	정치문화
1993	Fourth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질서	정치참여
1994	Fifth wave	문화, 가치판단	종교
1995	First wave	정치, 매스커뮤니케이션, 별거, 경제적 태도	가족, 개인간 관계, 정신상태, 레저
1996	Second wave	가족	일상태, 가족, 시민사회
1997	Third wave	사회계층, 사회적 이동	사회네트워크, 공동체
1998	Fouth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정치 문화
1999	Fifth wave	문화, 가치판단	종교
2000	First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경제적 태도, 정치 참여, 세계화	개인간 관계, 레저, 가족, 정신건강
2001	Second wave	가족, 사회적 문제	실업
2002	Third wave	사회계층	젠더
2003	Fouth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국가정체성
2004	Fifth wave	시민권	종교
2005	First wave	세계화, 일, 가족, 정신건강	사회계층과 사회적 이동
2006	Second wave	가족	시민과 정부역할
2007	Third wave	사회계층	레저
2008	Fouth wave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세계화
2009	Fifth wave	사회적 불평등	종교와 문화
2010	First wave	세계화, 일, 가족, 정신건강, 종교, 매스 커뮤니케이션, 정치참여, 레저	환경
2011	Second wave	가족	건강
2012	Third wave	사회계층	젠더
2013	Fouth wave	사회적 위협	국가정체성

출처 : Academia Sinica 홈페이지(<http://www.ios.sinica.edu.tw/sc/en/home2.php>)

53) Academia Sinica 홈페이지(<http://www.ios.sinica.edu.tw/sc/en/home2.php>)

11) 캐나다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up>54)</sup>

- 조사실시기관 : Statistic Canada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1985년, 매년(주제별 5년 주기)
- 조사내용 : 사이클마다 조사주제 다름

〈부표 5-10〉 캐나다 종합사회조사의 연도별 주제

조사 주제	조사연도(Cycle no.)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건강	1985(1)	1991(6)				삭제
생활시간	1986(2)	1992(7)	1998(12)	2005(19)	2010(24)	
범죄피해(Victimization)	1988(3)	1993(8)	1999(13)	2004(18)	2009(23)	
교육, 직업, 은퇴	1989(4)	1994(9)	2002(16)	2007(21)		
가족	1990(5)	1995(10)	2001(15)	2006(20)	2011(25)	
사회적 지지	1985(1)	1990(5)	1996(11)	2002(16)		노인과 통합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2000(14)					일회조사
사회적 지지와 노인	2002(16)	2007(21)				
사회적 계약	2003(17)	2008(22)				



54)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can.ca/>)

## 12)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up>55)</sup>

- 조사실시기관 : Statistics New Zealand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2008년, 2년 주기
- 조사내용 :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 즉, 재정적인 웰빙, 건강, 주거와 이웃, 안전, 사회적 연결과 고립, 자원봉사참여, 환경, 삶에 대한 만족
  - 세부내용: 가구주 항목, 개인 항목, 전체 삶의 만족도, 건강, 지식과 기술, 노동, 경제적 수준, 주거, 환경, 가족간 지원, 사회적 연결,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정체성, 정치참여

---

55)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s.govt.nz/nzgss>)

### 13) 영국의 종합가구조사 (GLF: General Lifestyle Survey) 56)

- 조사실시기관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최초실시연도와 주기 : 1971년, 매년
  - 2008년 이전에는 General Household Survey
- 조사내용 : 가구/가구원 항목과 매년 특정 주제 모듈 항목
  - 가구 항목 : 가구정보, 주거유형, 소비, 토지보유, 주거비용 등
  - 가구원 항목 : 고용, 연금, 교육, 건강, 돌봄, 흡연, 음주, 가족정보, 재정상황, 소득 등
  - \* 추가로 EU-SILC<sup>57)</sup>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에는 주관적 웰빙 항목 포함



56) 영국 통계청(<http://www.ons.gov.uk/ons/rel/ghs/general-lifestyle-survey/2011/index.html>)

57)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